

문화비축기지 2022 탱크예술제-산책자들

녹색게릴라 자연-미술 사계절 워크숍_2022 가을

GREEN GUERRILLA
nature-art
FOUR SEASON
WORKSHOP
2022
AUTUMN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산책자들 Walkers

2022 Oil Tank Culture Park Tank Art Festival - Walkers
2022.10.15-16

GREEN GUERRILLA
nature-art
FOUR SEASON
WORKSHOP
2022
AUTUMN

주최: 문화비축기지

기획: 대안미술공간소나무 

강혜경 Heykyung Kang
 고사리 Sari Go
 권오열 Oyeol Kwon
 김등용 Deungyong Kim
 김미련 Miryeon Kim
 김성미 Seongmi Kim
 김성아 Sung A Kim
 김순임 Soonim Kim
 박승현 Seunghyun Park
 박우찬 Uchan Park
 성상식 Sangsik Sung
 오혜린 Hyerin Oh
 안보미 Bomi Ahn
 이장욱 Jangwook Lee
 이지미 Jimi Lee
 이 훈 Hoon Rhee
 이해경 Hyekyung Lee
 임승균 Seungkyun Lim
 임정서 Jungsuh Sue Lim
 장은경 Eunkyoung Jang
 전원길 Wongil Jeon
 정원연 Wonyeon Chung
 정승혜 Seunghea Jung
 조재원 Jaeweon Cho
 최예문 Yemoon Choi
 최용선 Yongsun Choi
 최지은 Jieun Choi
 홍지희 Jihee Hong
 Alejandro Jaime Carbonel/ Peru
 Anurak Tanyapalit/ Thailand
 Carlos de Gredos/ Spain
 Evelyn Grzinich/ Estonia
 Jahanbakhsh Amirbeygi/ Iran
 John Grzinich/ Estonia
 Jordi Gonzalez/ Spain
 JYoohyun Lee/ USA, Korea
 Kaiqin Zhang/ China
 Karin van der Molen/ Netherlands
 Klega/ Germany
 Lynn Bennett Mackenzie/ Scotland, UK
 Marty Miller/ USA
 Mrugen Rathod/ India
 Sergi Quiñonero/ Spain
 Simon Whetham/ UK
 Strijdom van der Merwe/ South Africa
 Takako Yamaguchi/ Japan
 Tatsunori Fujii/ Japan
 Uku Sepsivart/ Estonia
 XIAO Li/ China, Japan
 Zehra Khan/ USA

녹색게릴라

녹색게릴라는 대안미술공간 소나무가 주관하는 자연-미술 사계절 연구모임(GG地靚워크숍)으로 자연-미술 워크숍, 전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한다.

우리가 즐겨 자연을 찾는 것은 생성 소멸을 거듭하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 공명하는 몸의 자연성을 되살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풀과 나무를 싹 틔워 자라고 결실하게 하는 땅, 물, 빛, 바람의 기운을 느끼고, 천지간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과 모든 물체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빈 손과 빈 마음으로 자연을 맞이하고, 자유로운 몸짓으로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해 자연과 더 붙어 생각하고 반응한다.

자연의 생명력이 나의 무심한 발상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순간 자연과 예술은 하나로 통한다. 우리는 이 상태를 지지地靚라 부른다. ‘지지’는 자연에 반응하는 인간의 소소한 행위의 결과이며 놀라움이다. 자연에서 생겨난 ‘지지’는 이내 사라지지만 다양한 표현 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든다.

녹색게릴라는 지식의 횡포와 경쟁의 억압으로 부터 벗어나 자연스러운 자유 미술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 갈 것이다. 자연 깊숙한 곳에서 동시대 미술 최전선에 이르는 녹색게릴라의 활동이 이 시대 예술계에 신선한 기운을 전하며, 땅의 지혜를 담은 ‘지지地靚’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예술이 되길 소망한다.

Green Guerrilla

Green Guerrilla is a Nature-Art research group hosted by Art Space Sonahmoo. Green Guerrillas communicate through Four Season Nature-Art workshops(gg Workshop), exhibitions, and residency progr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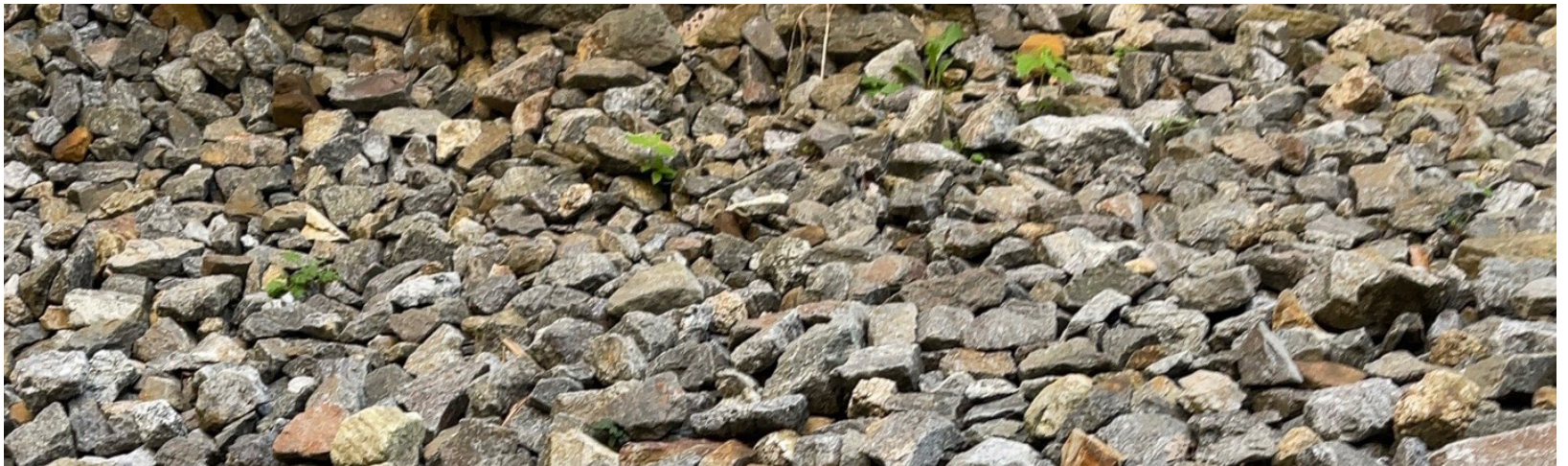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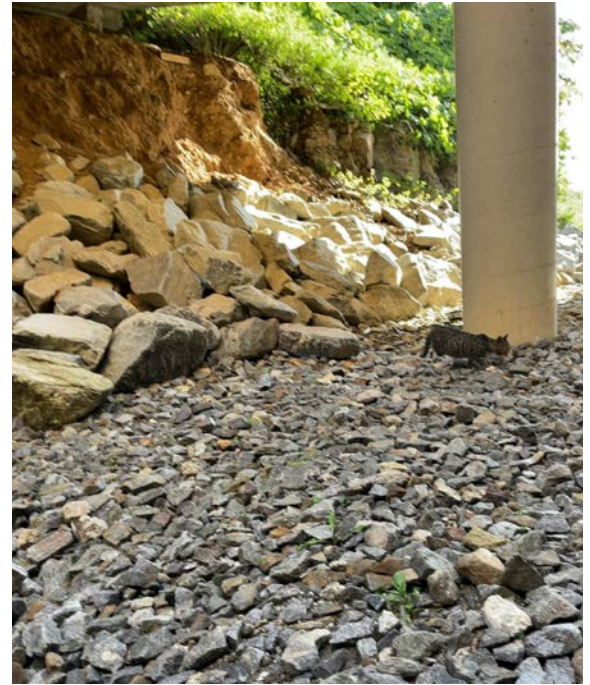
The reason we often enter into nature is to revive the nature of the body that resonates with the flow of nature that repeats creation and extinction. We feel the energy of the earth, water, light, and wind that spurts, grows, and bears grass and trees, and we listen to the sounds of living things and all objects between heaven and earth. We meet nature with empty hands and empty hearts, and think and react with nature to become one with nature with free gestures.

The moment nature's vitality strikes a harmonious balance with my humble idea, nature and art become one. We call this state the Green Guerrilla's 'gg'. 'gg' is the result and the surprise from small human actions in response to nature.

The 'gg' created in nature disappears in time, but it seeps into people's minds through various forms of expression. Green Guerrillas will free themselves from the tyranny of knowledge and the oppression of competition and open up together the possibility of natural free art. We hope that the activities of green guerrillas from the depths of nature to the forefront of contemporary art deliver a fresh energy to the art world of this time, and that 'gg 地智', which contains the wisdom of the earth, becomes the art that lives with people.

강혜경 Heykyung Kang





고사리 Sari Go



봉선화 물들듯 물들어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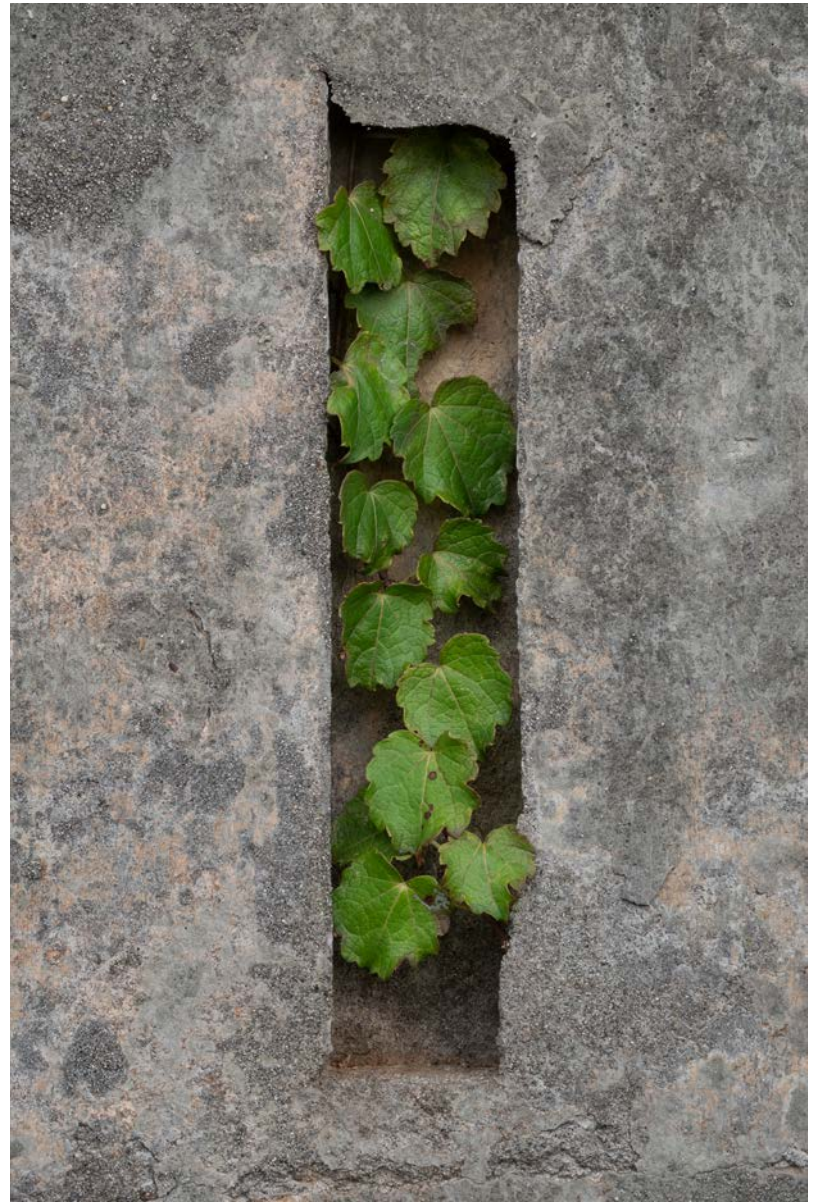
하늘보기



땅보기



길들여진 삶_1



길들여진 삶_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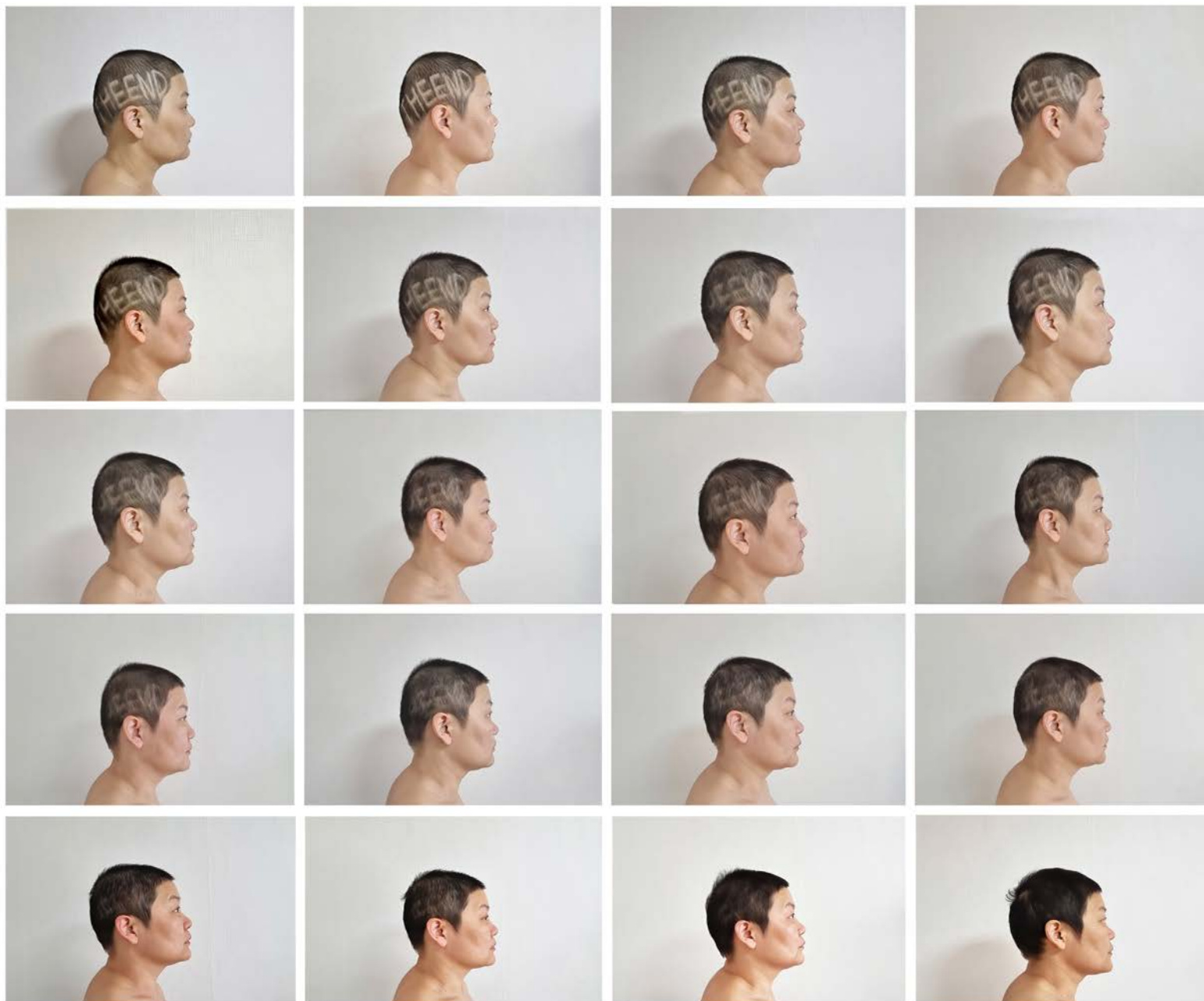


가을 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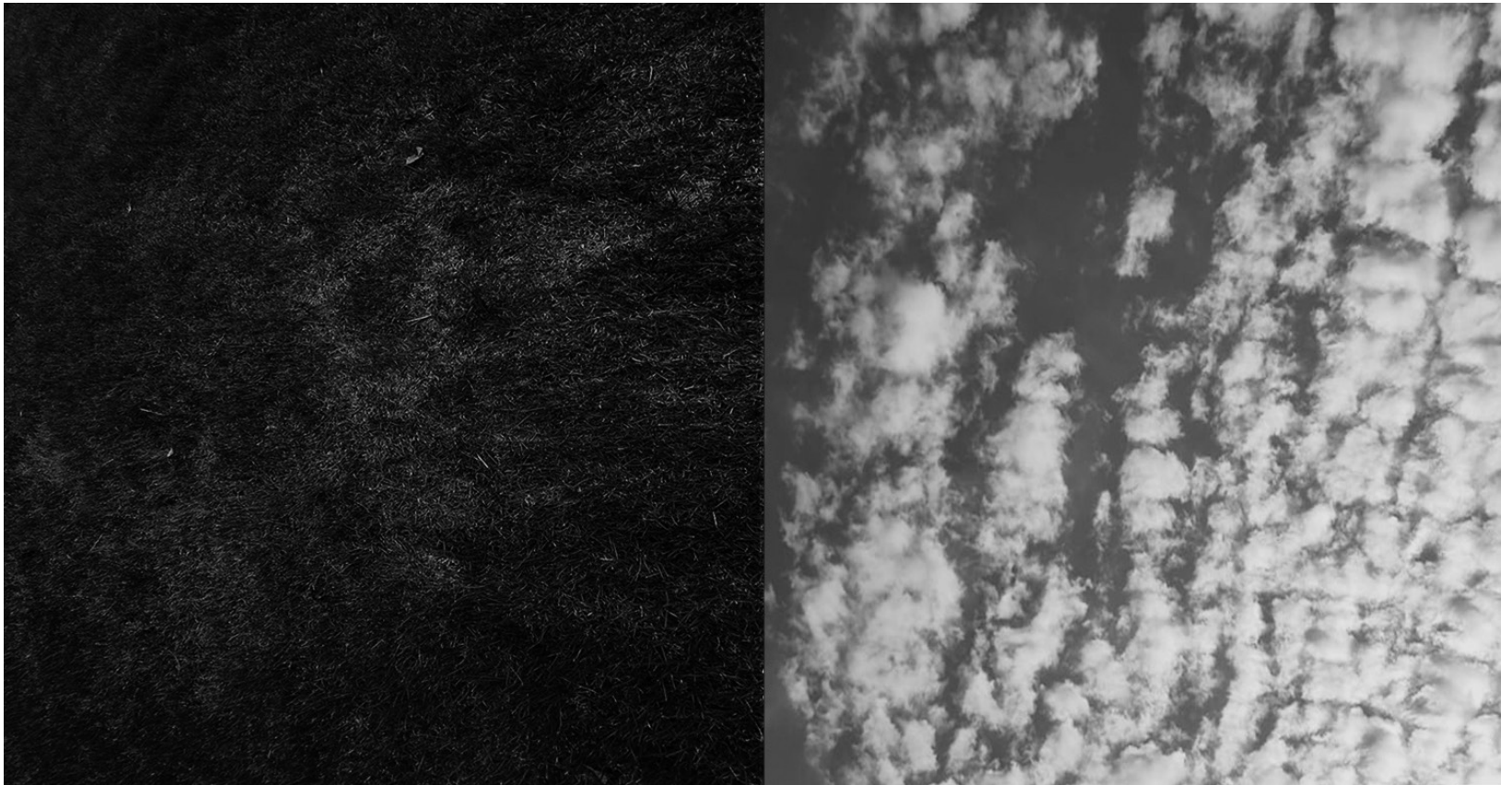
가을 한 쌈

김미련 Miryeon Kim



The END 2022, 80x64cm Everyday Photo Pigment print on Rice paper

항암을 마치고 난후 The END라고 라인컷을 머리카락에 음각으로 넣고 2달동안 새 머리카락이 자라나오는 과정을 촬영한 사진 기록 작업



My Body-Print in Nature 문화비축기지 서울, 2022

'나의 지치고 아픈 몸을 자연에 뉘었다.
몇 시간 꿀잠으로 자연에 각인된 나의 몸'

김성미 Seongmi Kim

작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기록 No6 -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번지 문화비축기지



이 프로젝트는 존재하나 존재성 없는 식물 - 작고 보잘 것 없으나 살아서 빛나는 식물들에 대한 기록으로 서식지, 생육환경, 이주배경과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리서치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오랜 시간 암벽으로 둘러 쌓인 국가기밀시설 「석유비축기지」가 2013년 그 비밀스런 공간을 드러내고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탱크기지에는 잘 정비된 조경과 산책로가 있었고 그 틈과 틈 사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는 친숙하다 못해 흔하고 너른 이름 모를 식물들이 스스로 이동, 정착, 번식하고 있다. 2022년 10월 16일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번지 「문화비축기지」에서 벽면을 뚫고 자생할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서양등골나무. 꿀을 잘 모으게 도와 달라는 벌들의 부탁으로 하늘서 흰 물감을 뿌린 제우스 덕분에 탄생했다는 토끼풀. 옆으로 자라는 바랭이. 비수리-야관문. 소리쟁이. 닭의 장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김성아 Sung A Kim



공공미술 모래-시간 사진, 문화비축기지 서울, 2022



김순임 Soonim Kim



누워 본 하늘 _ 2022.10.15-16



0.5L 물의 길이_수평 2022.10.16
0.5L 물의 길이_수직 _2022.10.16



0.5L 물의 넓이_ 2022.10.16



검정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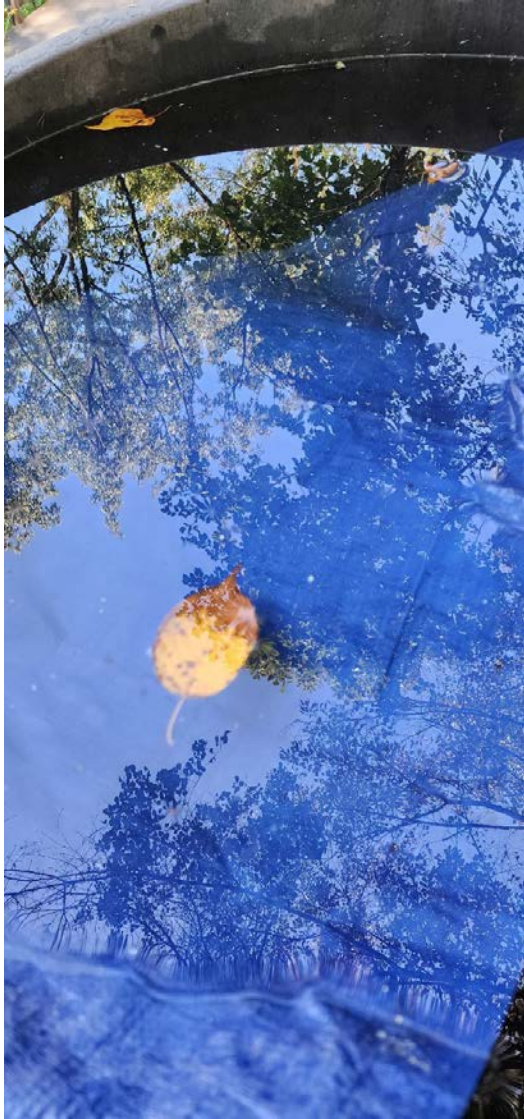


#13 Scene 0.1 거미줄과 나 Spider web & Me





#13 Scene 0.3
그물망과 돌 Safety net & Stone



#13 Scene 0.2
소화통과 나무 Fire extinguisher & Tree

박우찬 Uchan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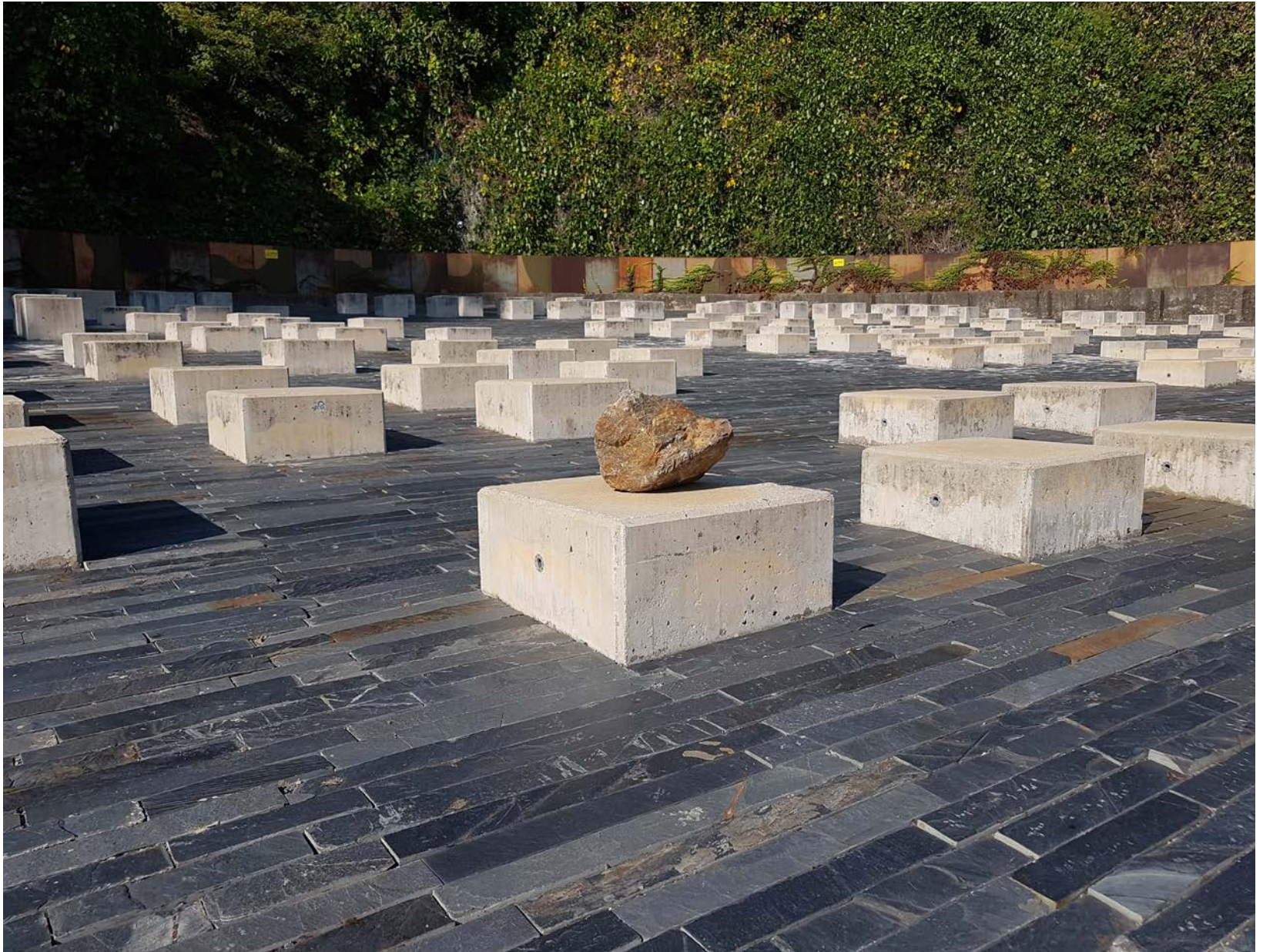




성상식 Sangsik Sung

자연의 경계

자연과 자연이 아닌 것의 경계는 무엇일까? 사람의 손을 거친 돌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돌을 놓고 바라본다.



녹색 게릴라즈

녹색 게릴라 활동을 진행 하면서 점점 자연에 익숙해져 가는 작가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짐

사람의 필요에 의해 쓰여 지고 남겨진 나무 밑동 위에 돌을 올려 사라진 나무의 무게를 표현하였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잊은 우리들이 지고 가야할 짐이자 운명이다.







오혜린 Hyerin Oh

이끼 기념비 a moss monumentvwm

물을 주었지
이끼가 자라더라
대수롭지 않았어
익숙했으니까

물을 더 주었지
자라고
자라고
자라고

깨어나라고

물을 주지 못했어
물이 너무 많아져서

물이 너무 많아서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떠내려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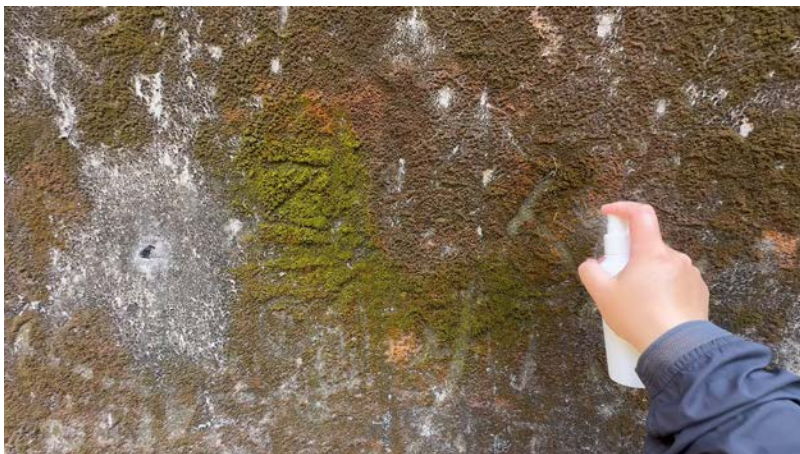
사라져버렸지

찾으려고 했지
떠내려가봤어
찾을 수가 없더라

어디로 간 걸까

다시 물을 주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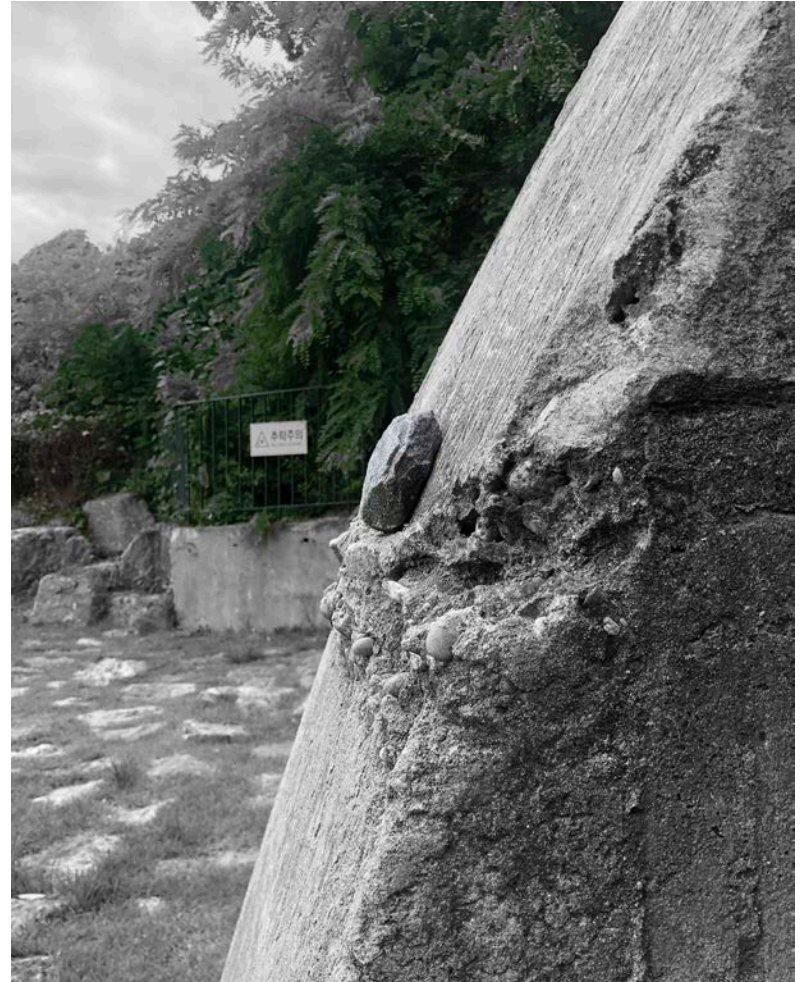
경청 1



경청 2



경청 3



경청 4



경청 5









이혜경 Hyekyung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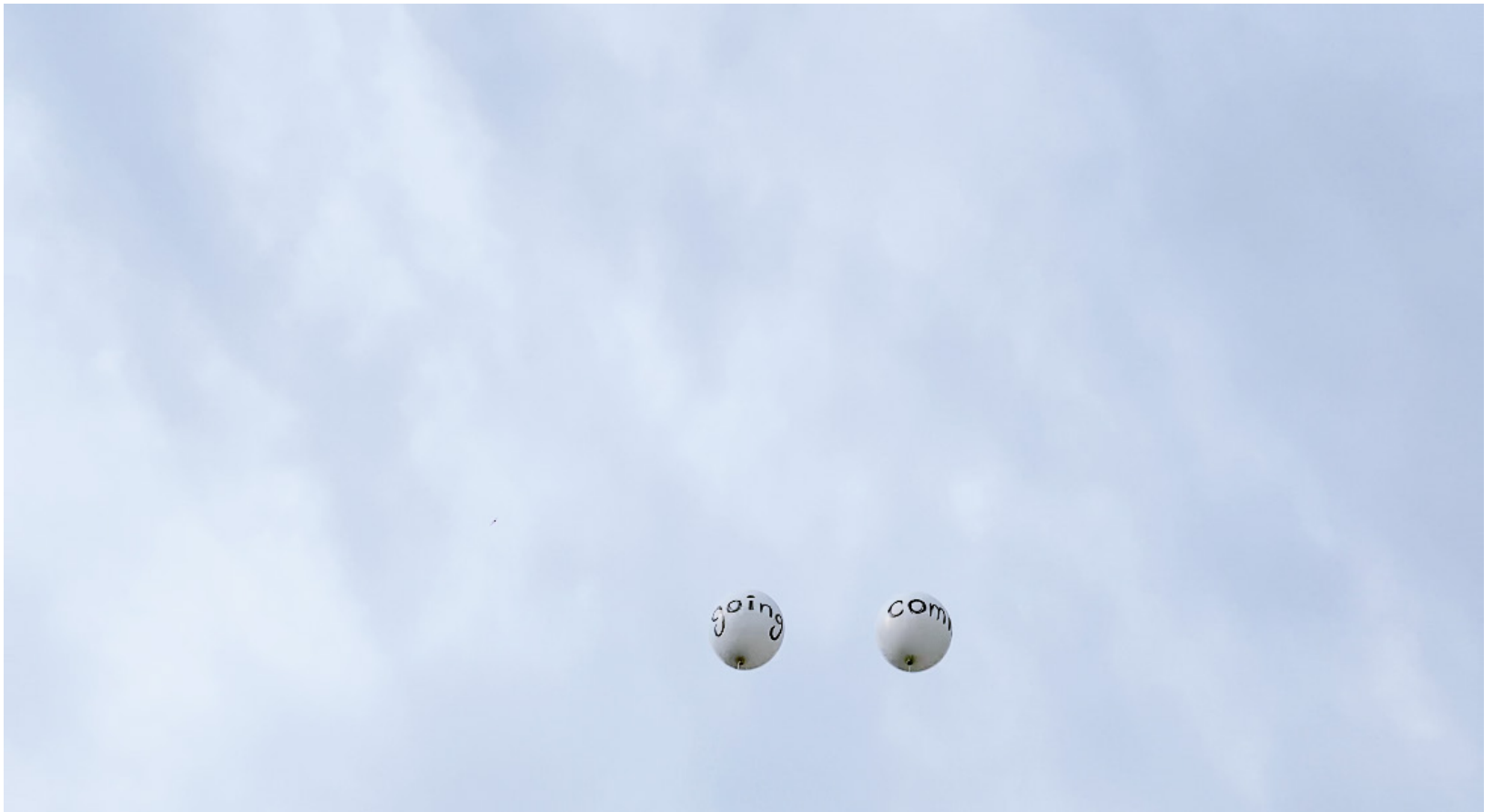




임승균 Seungkyun Lim



Balloon(스틸컷1) 영상 5min, 문화비축기지 2022



Balloon(스틸컷2) 영상 5min, 문화비축기지 2022

Balloon(스틸컷3) 영상 5min, 문화비축기지 2022





Untitled 1 문화비축기지 2022



Untitled 3 문화비축기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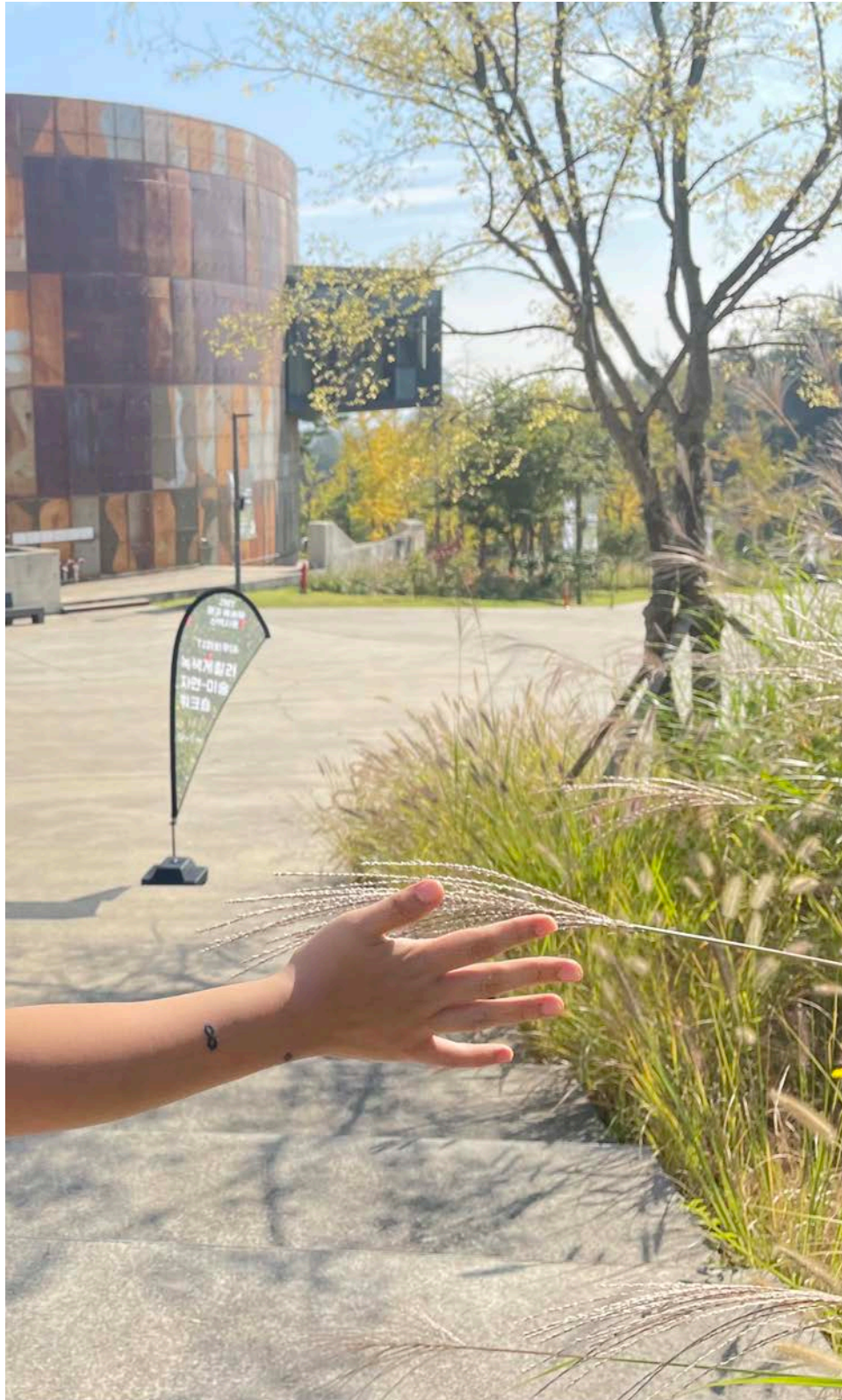


Untitled 2 문화비축기지 2022

Untitled 4 문화비축기지 2022

임정서 Jungsuh Sue Lim









장은경 Eunkyong Jang

2022-10-15 13:58



명당을 찾아서 1.

명당을 찾았다. 발을 딛는 순간 폭신했고 솔향기
진하게 안식감을 줬다. 은은한 빛에 적당한 그늘.
직감이 왔다. 매봉산 끝자락에 이르러 발견한
부드러운 곳

인적마저 드물어 참으로 편안하다. 바람도 차지않다.
다섯 그루의 나무에 둘러쌓여 있는 두평 넘짓한 편편한
공간에 자리를 깔고 앉아본다. 이윽고 살인 진드기의
공격을 받는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그 앞 벤치로
 옮겨 앉아 몸의 가려움을 느낀다.



명당을 찾아서



Hello world 宮市祐二 (feat. 坂本龍一, 寺島進)



harming day. 피곤했던 날



charming day. 張大千 墨



charming day. 張大千 墨



전원길 Wongil Jeon



뒤집다 문화비축기지, 2022

꿈다 문화비축기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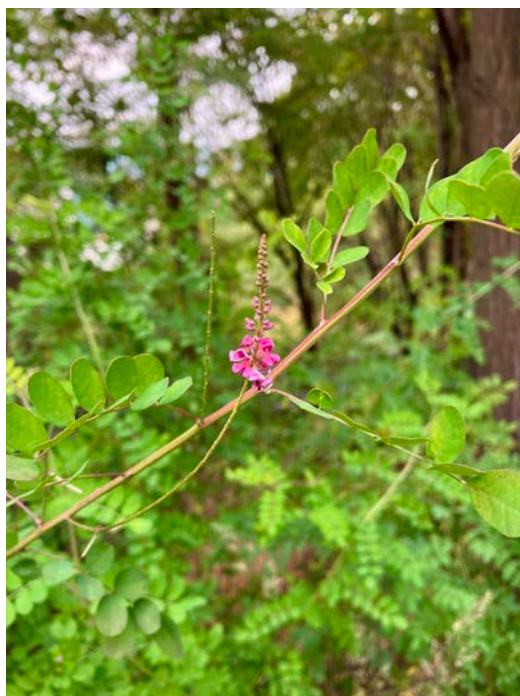
낙엽은 언제나 앞줄기가 아래로 향한다.
나는 앞줄기가 위로 향하게 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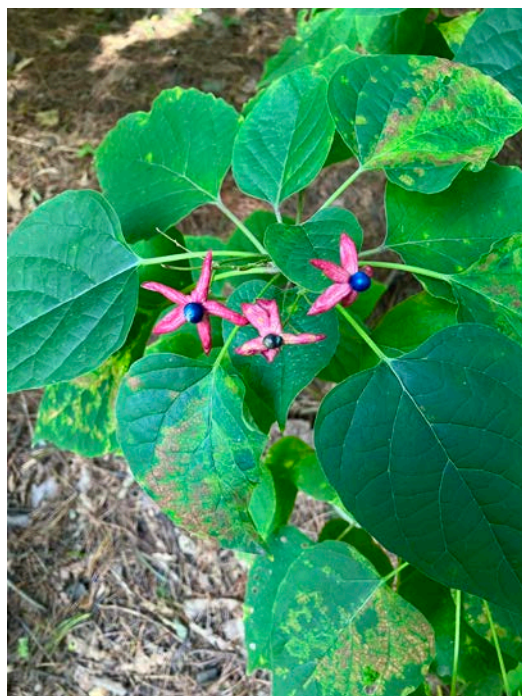


굿고 들다 문화비축기지, 2022





누리장 나무



낭아초



싸리꽃

매봉산에 온 풀 2022.10.15



울산 도깨비바늘



큰금계국



스카비오사콜롬바리아

매봉산에 온 풀 2022.10.15

조재원 Jaeweon Cho

낙엽이 대신 말해주니 고맙다

1983년 떨어지는 낙엽에게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캠퍼스를 같이 걷고 있던 친구는 화를 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며칠전 한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서 만난
친구에게 그때 화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친구의 머리엔 하얀 낙엽이 내려와 있었다



오늘, 하루를 넘기다



최예문 Yemoon Choi



New Hair 문화비축기지, 2022



만추환담 문화비축기지, 2022



아이가 풀에게 놀이터를 내어준다 video, 문화비축기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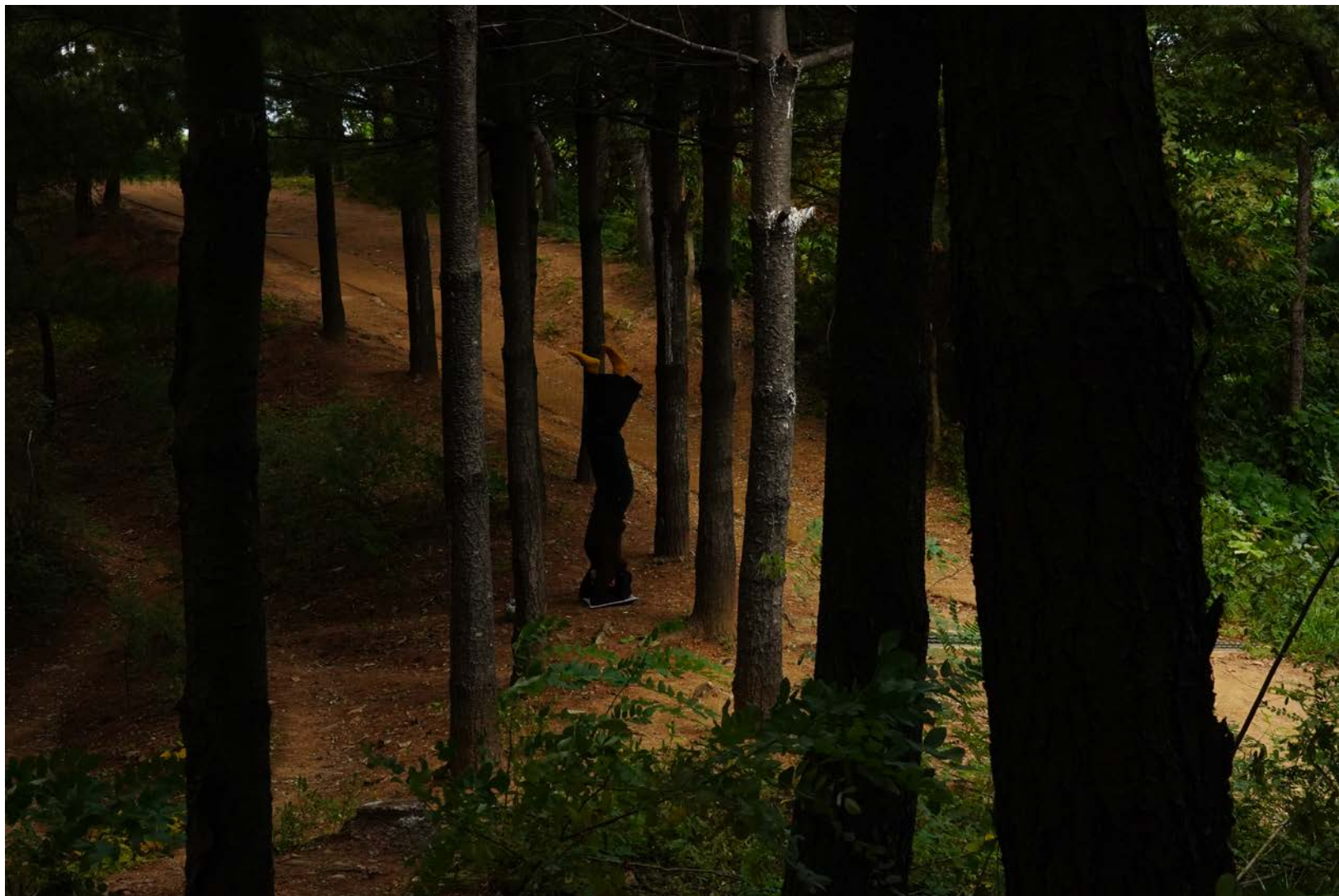








홍지희 Jihee Hong



흙을 움켜쥔 그들은



Alejandro Jaime Carbonel (Peru)



Water Union Project, made in collaboration with Gonzalo Palma

This project is located in a unique ecosystem in the north of Peru, the mangroves, resulting from the interaction of two bodies of water in the same space: the sea and the river, generating a series of unique living forms in the territory. This interaction was considered on two scales, one macro (the sea) and the other micro (the river), both scales creating new forms of life, from microorganisms to crustaceans and insects, large trees such as mangroves, to large-scale animals such as alligators.

The artistic action consisted in representing the interaction of both scales. To do this, a series of channels were dug on a small peninsula on both sides, which divides the river from the sea. When the tide arrives, the waters of both bodies of water enter progressively through the channels on both sides, creating a pant closure effect until they finally mix completely and that portion of land disapp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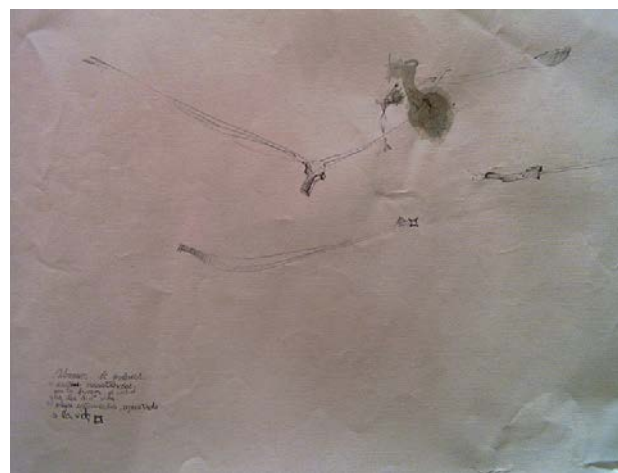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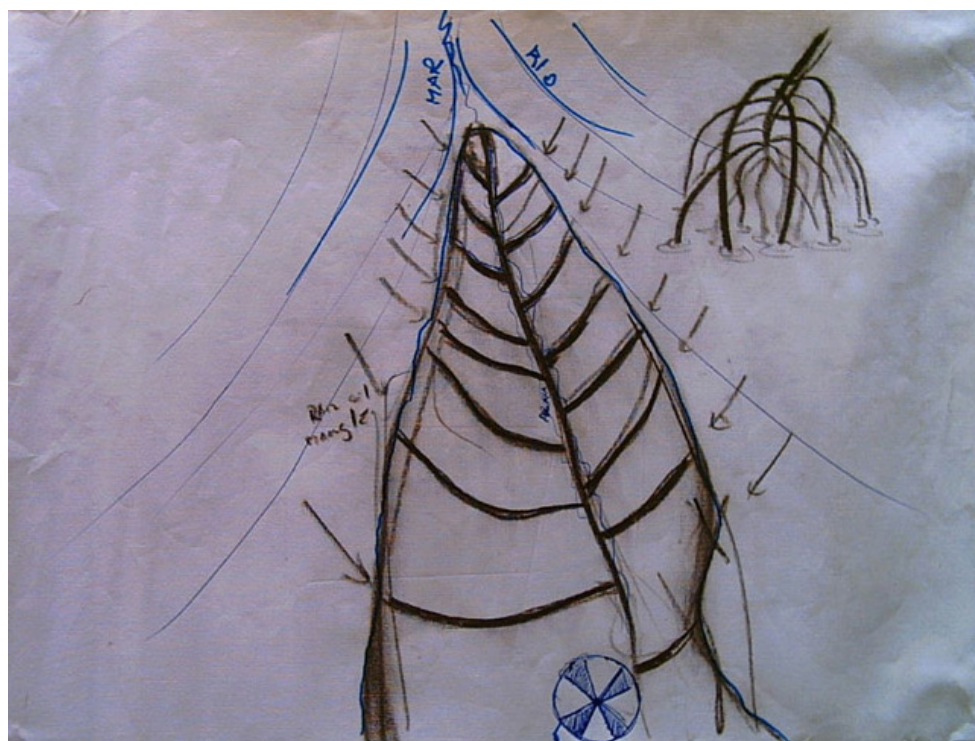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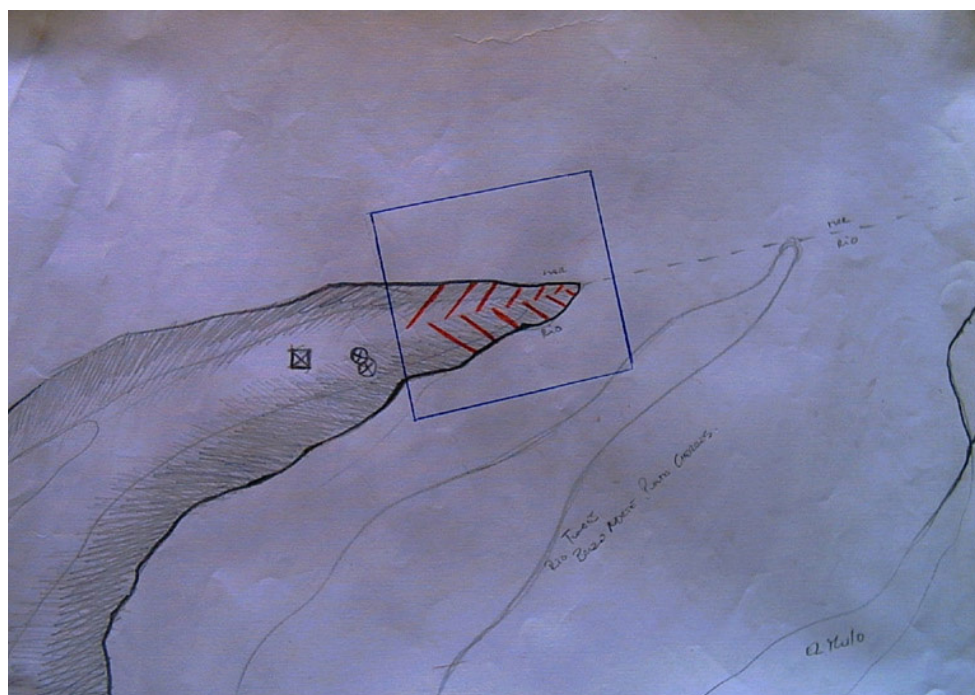
This proposal of nature art is ephemeral, it lasted as long as the change of the tides lasted; also it contemplated an in situ work of drawings through which an attempt was made to understand the space, the experie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one day one had to travel by river to get to the place).

Water Union 프로젝트, Gonzalo Palma와 협업

이 프로젝트는 페루 북부의 독특한 생태계인 맹그로브에 위치하며, 같은 공간에서 바다와 강이라는 두 개의 수역이 상호 작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일련의 유기적인 독특한 형상을 생성합니다. 이 상호 작용은 두 가지 규모, 하나는 거시적(바다)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강)에서 비롯되었으며 미생물에서 갑각류와 곤충, 맹그로브와 같은 큰 나무, 악어같은 생명체를 만듭니다.

작업은 서로 다른 이 둘 사이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강과 바다를 나누는 양쪽의 작은 반도에 일련의 수로를 팅습니다. 밀물이 오면 양쪽 수역의 물이 양쪽의 수로를 통해 점진적으로 들어가 마침내 완전히 섞이고 육지의 해당 부분이 사라질 때까지 바지 클로저 효과를 만듭니다.

이번 자연미술 작업은 일시적이며, 조류의 변화와 함께 한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공간, 경험 및 장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작한 현장 드로잉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강을 건너야 그 장소에 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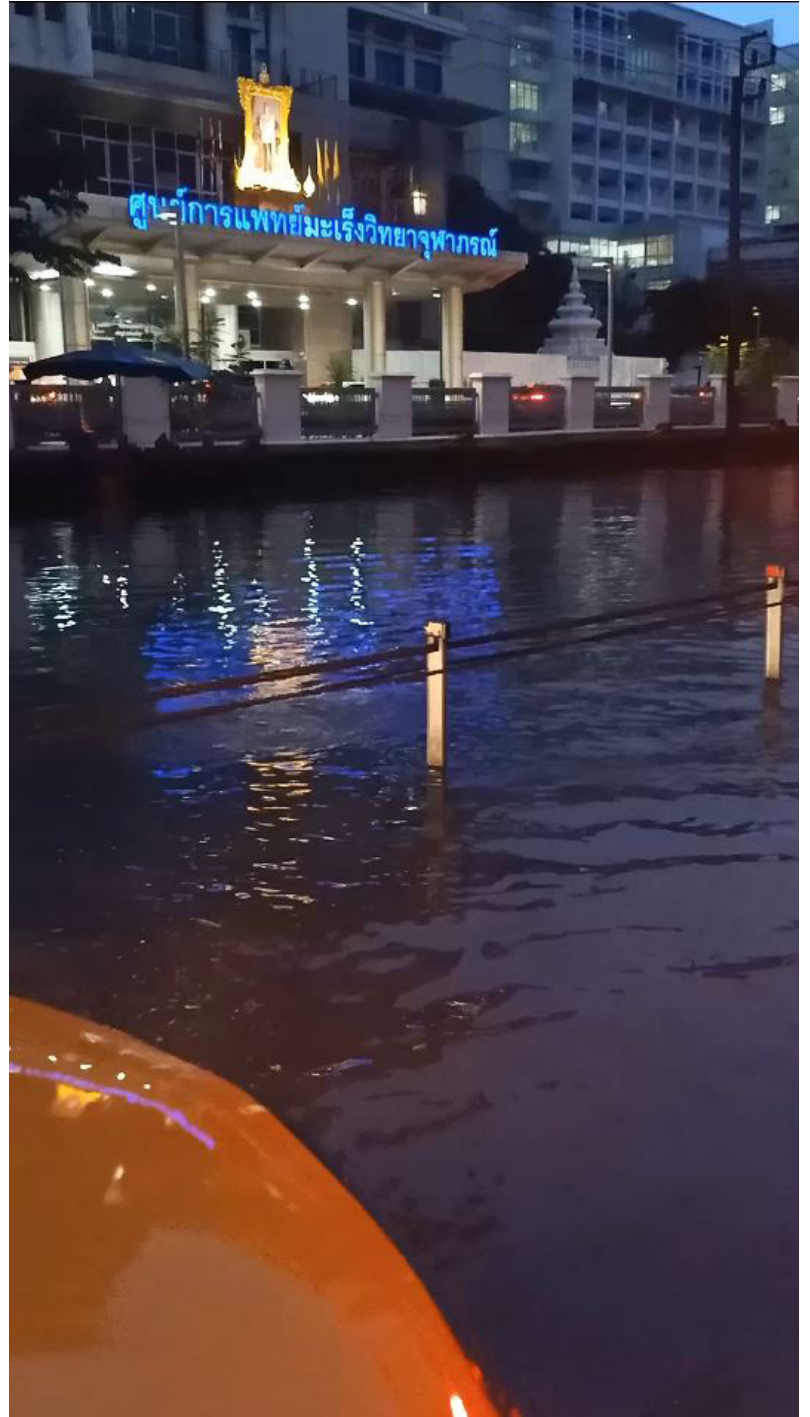
Anurak Tanyapalit (Thailand)

I record this video after I back from Korea and then I stay in Bangkok few day before back the Chiang Mai. On the video recording on the way that I'm going to airport to take flight to Chiang Mai during rush hour and heavy rain in the same time and some part in Bangkok are flooding. Many people stuck on traffic jam so long time.









Carlos de Gredos (Spain)



The path of the tree, the path of dawn, I carve. 2022

El camino del árbol, el camino del albor, labro. Cerro Gallinero Art and Nature Center. Hoyocasero, Ávila, España. Still image



The antigravity is random. 2022

La antigravedad es aleatoria. El Arenal, Ávila, España. Still image



The cosmic egg. 2022 El huevo cósmico. Hoyocasero, Ávila, España. Still image



The footprint before the Footprint. 2022
La huella antes de la Huella. Hoyocasero, Ávila, España. Still image

Evelyn Grzinich (Estonia)

Animated action from the series : There is nothing more alive than...

13.10.2022, Piirimäe farm, Viisli, Estonia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biomass is in the soil, making it a critical habitat for biodiversity. Millions of species, trillions of microscopic organisms... soil is a complex ecosystem. Life on Earth feeds from soil, and this is where it returns to transform and sprout again.





Jahanbakhsh Amirbeygi (Iran)



Difference- Entry In Exchange of Exit
Hamedan, Iran 2019



My Movement, Our Movement
Tehran, Iran 2022



The Wise Mammal, The Awake Partridge
Zardanja, Isfahan, Iran 2021

Vicious Cycle
Zardanj, Isfahan, Iran
Red iron oxide, running drinking water
2021



John Grzinich (Estonia)

It is a singing wind harp installation powered only by wind.

Details are here : <https://www.sonicacts.com/biennial/biennial-2022/programme/powerless-f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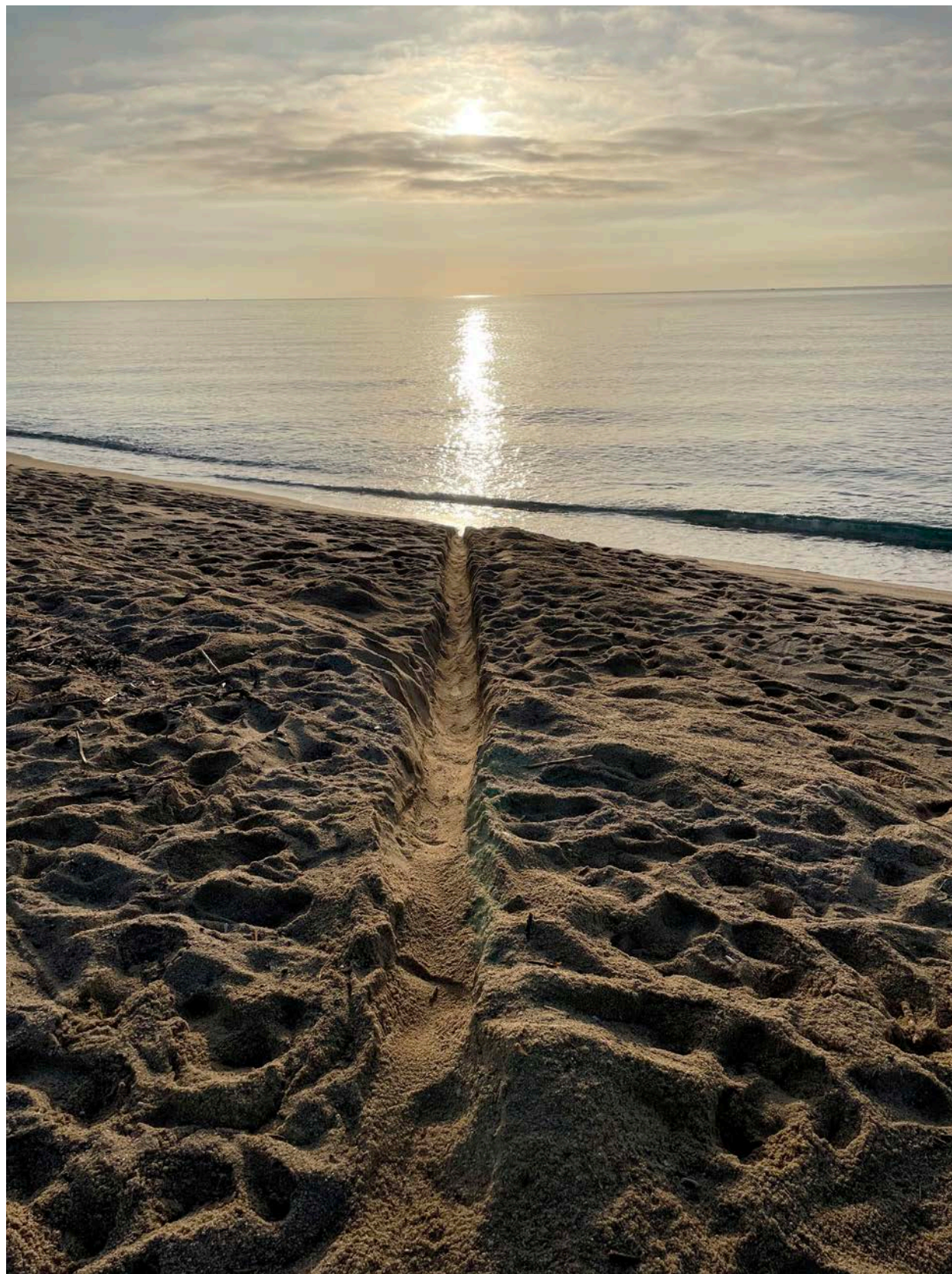
Jordi González (Spain)

Reason and Nature

A square made around a pine tree with dried pine leaves. 1x1m. Serralada Litoral – Coast range (Alella)



Sunrise
Worked on Ocata beach
(15km from Barcelona) at sunrise
8 am.
The work follows the Sun
declination at 8 am
(could be the title).
10m long, 20 width, 20 deep.





Kintsugi : Parc Serralada Litoral, Catalonia, Spain, 2019



Invisible garden : Catalonia, Hilariu Festival 2022

JYoohyun Lee (USA, Korea)

2022.10.15.

홍콩 라마섬 한 귀퉁이.

집이 온갖 열대나무들과 생명력 강한 풀들이 자라는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바빠 집 주변 관리를 소홀하면 어느새 대문이 가려질 정도로 식물들이 무성해집니다.

오늘, 챙이 넓은 모자와 팔다리를 가리는 옷, 발목을 가리는 양말을 신고 풀숲에 들어가 '미안하지만 나의 자리'라며 선을 긋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당분간은 또 내 자리, 네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그러는 동안 관찰하고, 발견하고, 얻은 것들입니다:

Oct. 15th, 2022

Somewhere on Lamma Island, Hong Kong.

I live in the midst of tropical trees and weeds.

If I get too busy to keep up with housekeeping, the plants creep up from all over the place and cover up the paths.

Today, I put on a wide-brimmed hat, long sleeves to cover my limbs and long socks. I went into the weeds and acted "sorry, but here is the boundary".

And so, we found the boundary again for a wh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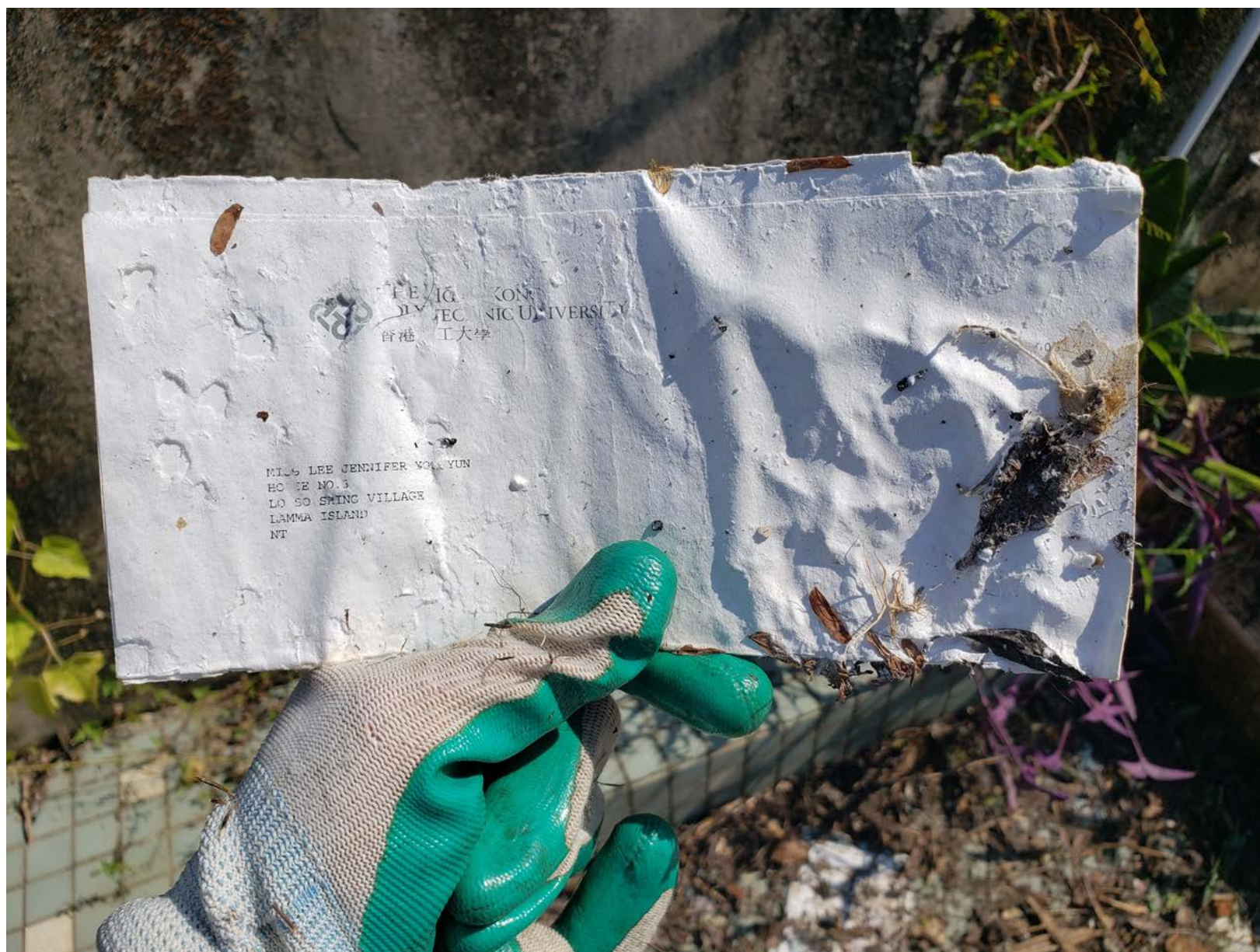
Following are the things I observed, discovered, and resulted in:

Bardo [동영상; 04:12]

<https://youtu.be/7fc9O2vMUek>







I found a letter from school to me, and it looks like this [동영상; 01:10]
<https://youtu.be/xmNXM6tiObA>

With Intention [콜라주]



Kaiqin Zhang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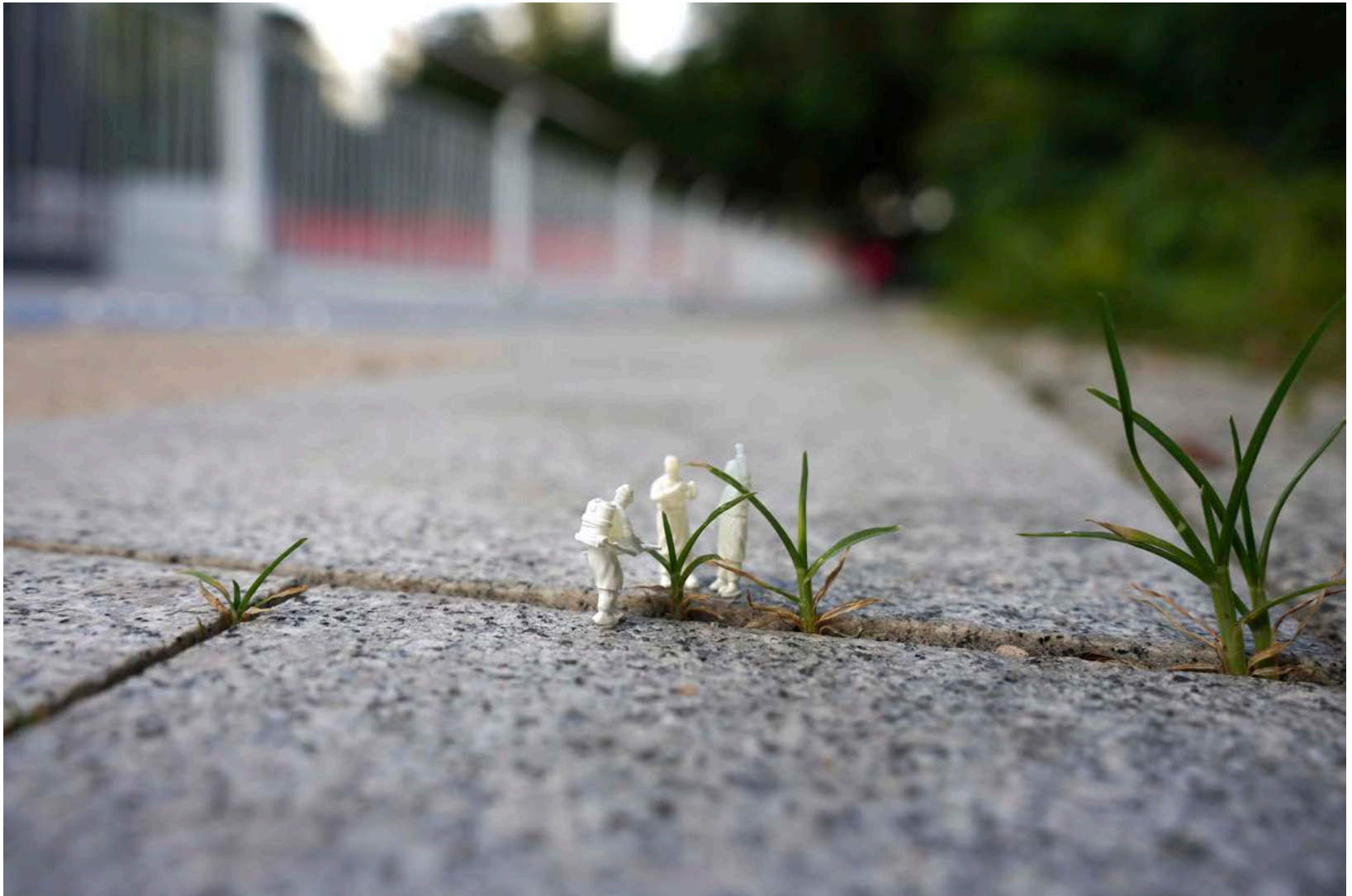
Disinfection

Here is my feeling about the city in these 3 years.

The soil for our roots nowadays is a sort of "nature+machine" rather than "nature". It is a "man-made nature". How we grow in this soil and what kind of attitude we are having confront to this soil? We are wrapped by plastic and so afraid of environment, people, history around us. What's next?

venue: Shenzhen, Guangdong, China

year: 2022.10





Karin van der Molen (Netherl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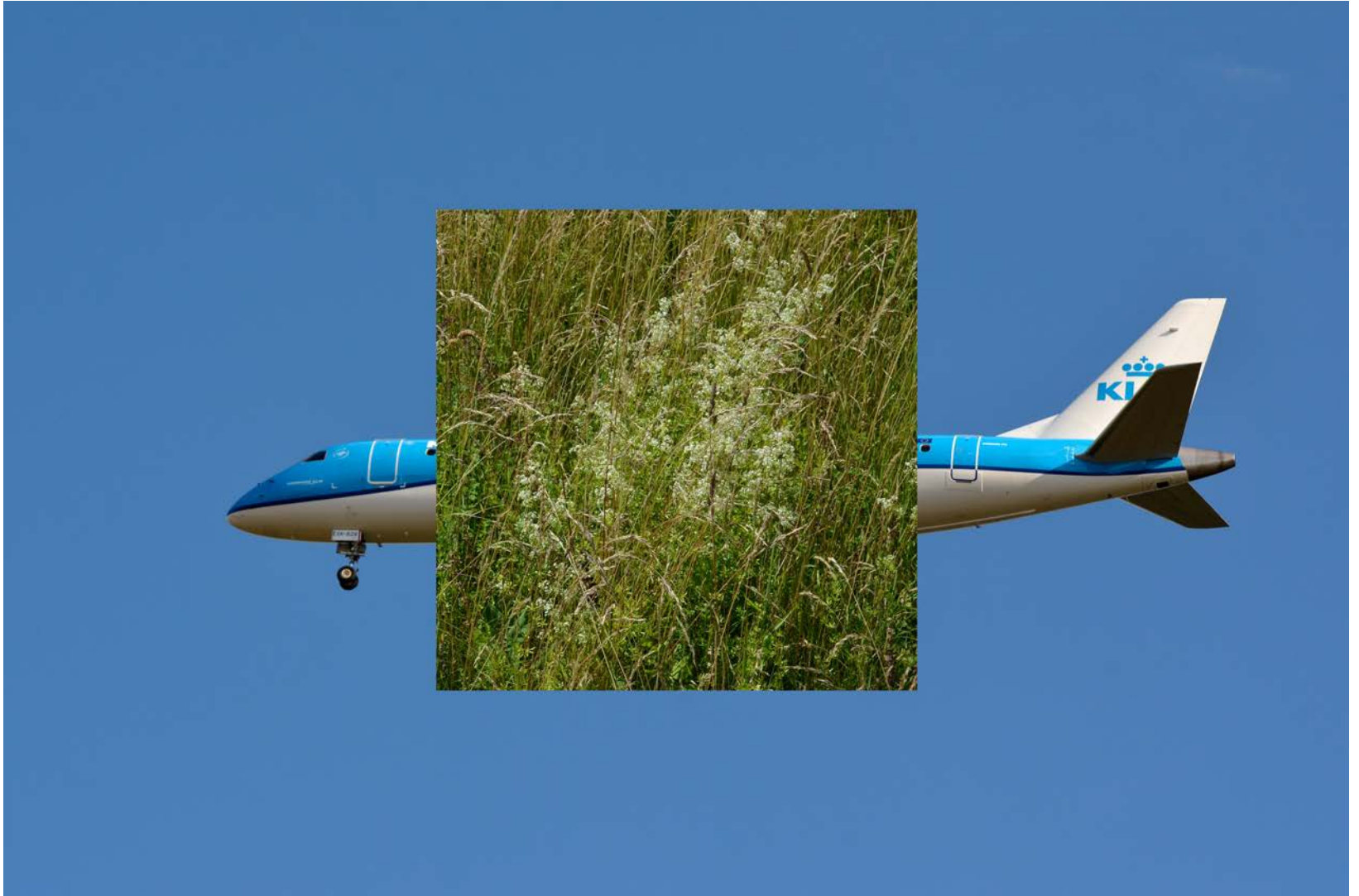
White Flag

White Flag is an ongoing series in which I bear witness to situations that are urgent, need attention, but I cannot change them by myself. I surrender, but I do not look away, I bear witness. These two pictures bear witness to the deplorable state of the forests in my country, suffering from drought, pollution and human intervention.





Klega (Germany)



grass over a landing plane 2022



splitscreen of grass 2022

grass covering flowers 2022





a leaf sinks into the river 2022



drew smiley on a single corn 2022

Lynn Bennett Mackenzie (Scotland / 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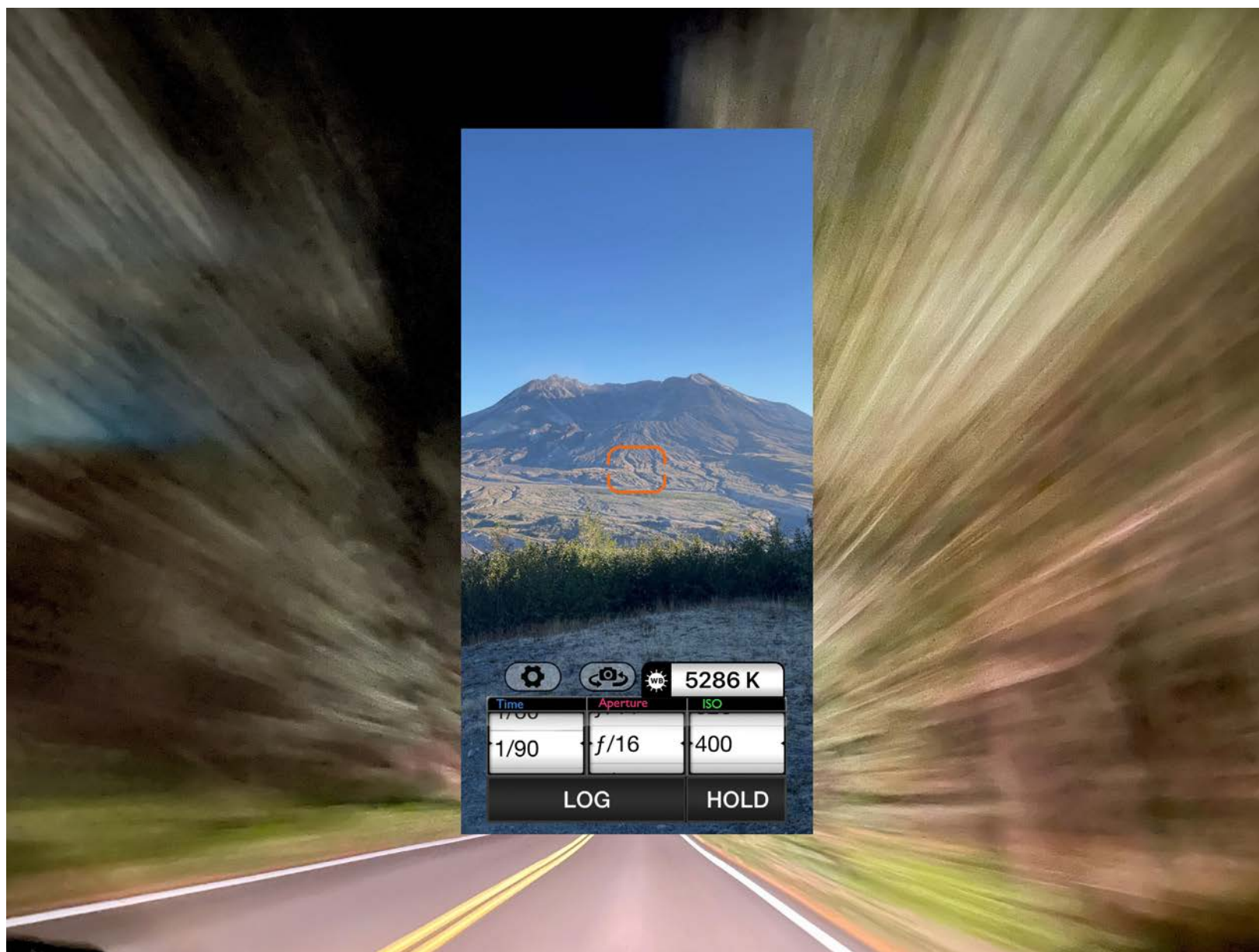




Marty Miller (USA)

I just went to Mt. St. Helens. It was a powerful experience. I don't think the photos can communicate as well as the feeling inside the mountain (or inside me t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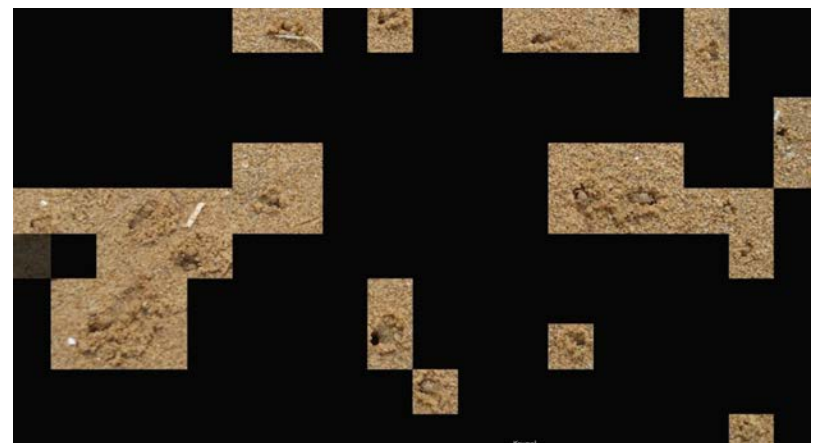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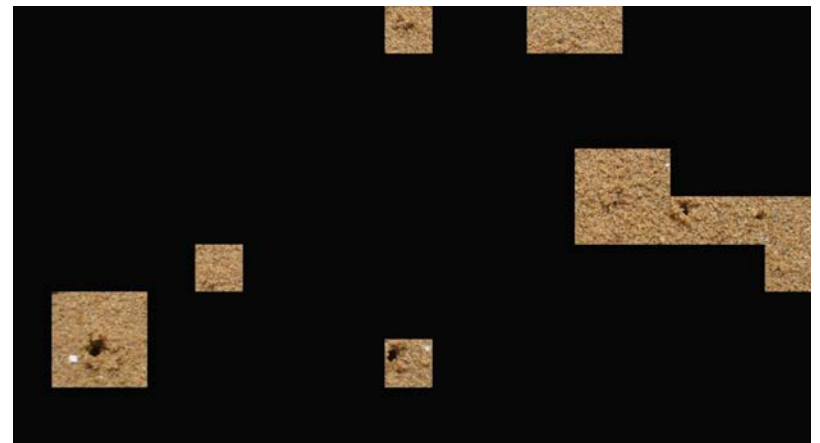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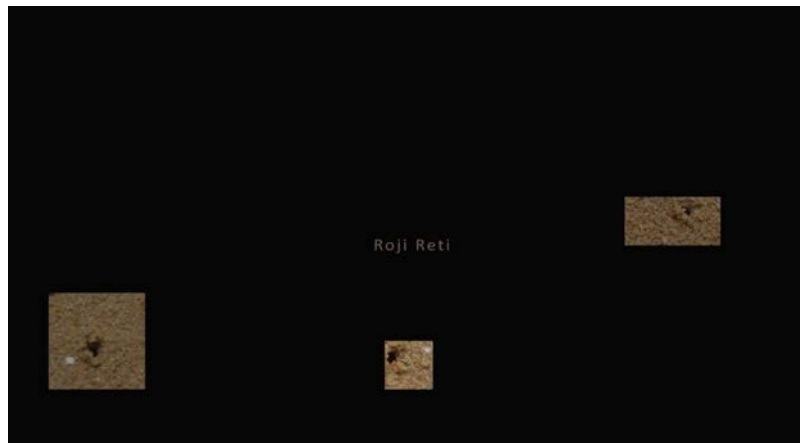
Mrugen Rathod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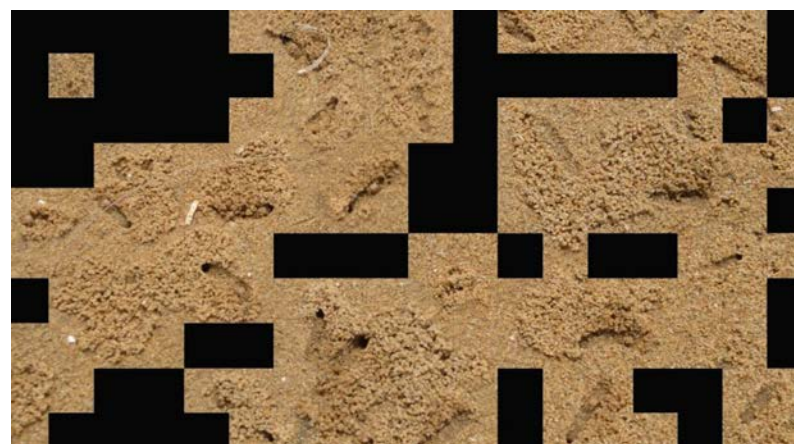
Roji Ret

iA 24.08.22.mp4

At the junction of the river and the ocean, I found the tiny crab community busy in their mundane activity of digging valuable sand and eating plankters, recharged by the waves of the everyday tide. A few hundred meters away the trucks and heavy JCB (giant diggers) machines were also busy in their mundane activity of mining sand. The video documentation of the sand mining zone was impossible because of the illegal nature of their activity. I used a discrete method of documentation – recording sounds of truck drivers, JCB operators, local security guards, and some farmers who survive on the river.

Roji Reti title comes from the word “Roji Roti” which means, everyday earning for a loaf of bread or 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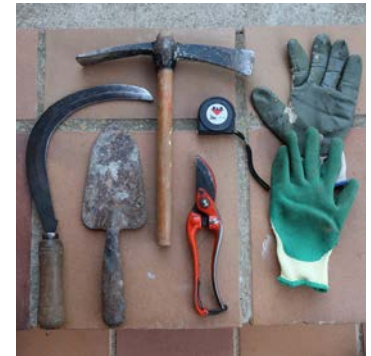
Sergi Quiñonero (Spain)

Marca Mark

Segments de canya americana i pigments naturals (noguerines)
Forat excavat de 28 x 28 cm i 5 cm de profunditat
Restes de plantes mortes recol·lectades a l'entorn. Alçada de 7 cm.
15-10-22, de 8:00 a 9:30 h.
Molí Vell (Tarragona, Catalunya)

American cane segments and natural pigments (nogalins)
Excavated hole 28 x 28 cm and 5 cm deep
Remains of dead plants collected in the environment. Height of 7 cm.
15-10-22, from 8:00 a.m. to 9:30 a.m.
Molí Vell (Tarragona, Catalonia)

Una obra de Sergi Quiñonero
A work by Sergi Quiñon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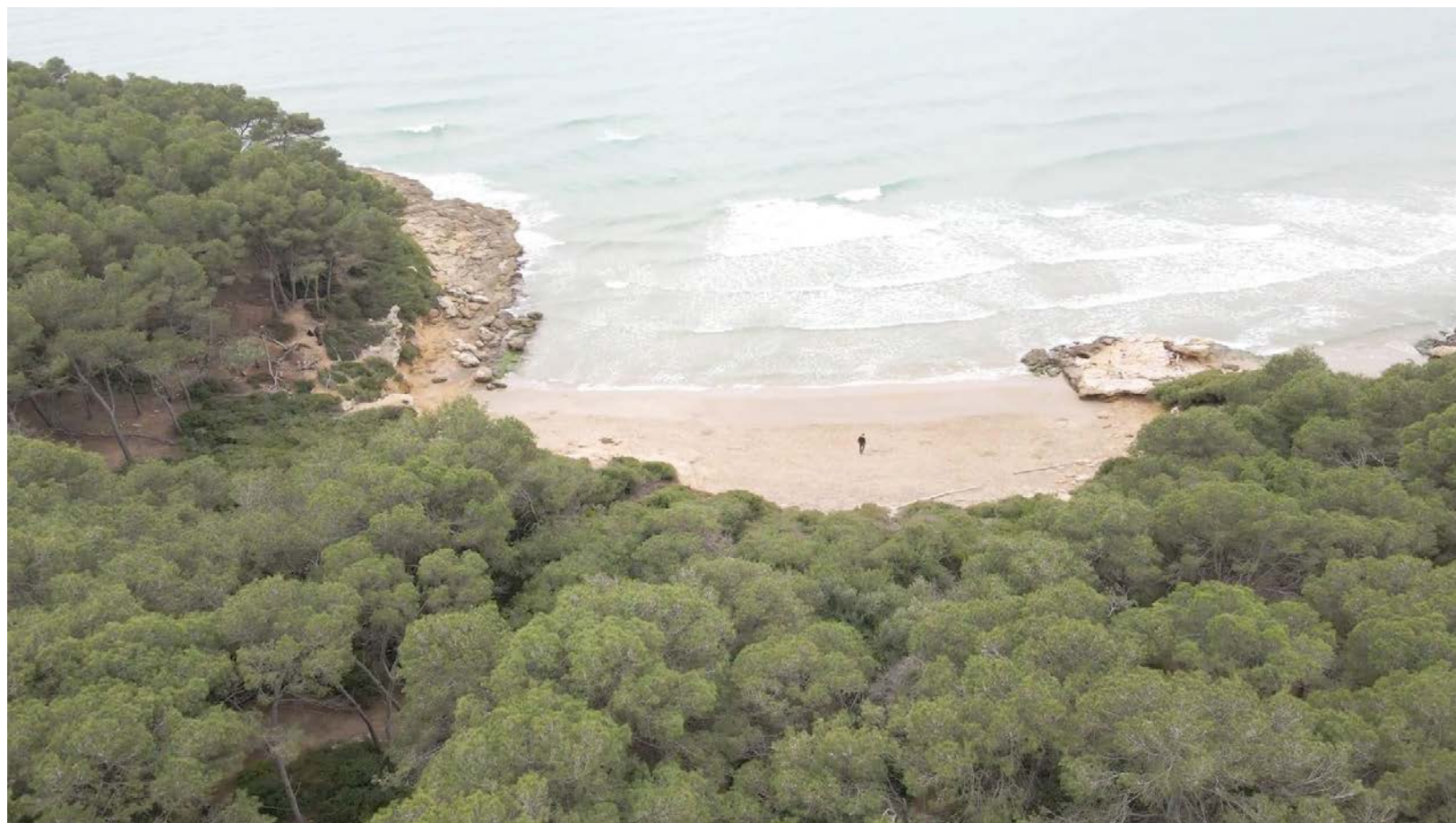
ANELLA VERDA

ANELLA VERDA is a hybrid project consisting of three artistic actions that are presented in video and that tell us abou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ity and the semi-natural environment of the green ring of Tarragona (Spain).

The audiovisual direction was in charge of Nani Blasco, while Sergi Quiñonero was in charge of the art. The localization, scripting and recording process by the two creators lasted from late winter to early spring 2021.

Anella Verda, which closed in September 2021, has become a reality thanks to the subsidy for professionals in the cultural sector from Tarragona City Council.

It premiered at the headquarters of Casa Canals, Mèdol – Contemporary Arts Center, on Thursday, April 7, 2022, as part of the "Physis" (Green Culture)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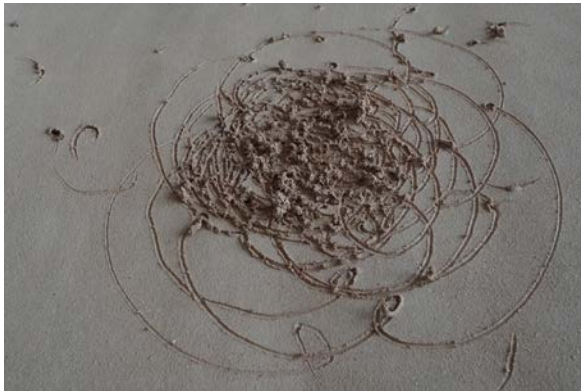
Simon Whetham (UK)

A Escrita das Fontes images

<https://www.simonwhetham.co.uk/binauralnodar>

I was invited by Binaural Nodar to respond to and create work inspired by the rural village of Alva, Portugal. Over three weeks of site visits I used salvaged motors and locally sourced clay to investigate how the water and sound energy of the springs and fountains in Alva could be transduced and translated as material traces. The results became a collection of ceramic tiles, each with a different pattern drawn by a stylus that the sound of the water activated.

The title came from an exclamation during the presentation to the community – A Escrita das Fontes – which literally translates as 'the writing of the fountains'.





Strijdom van der Merwe (South Af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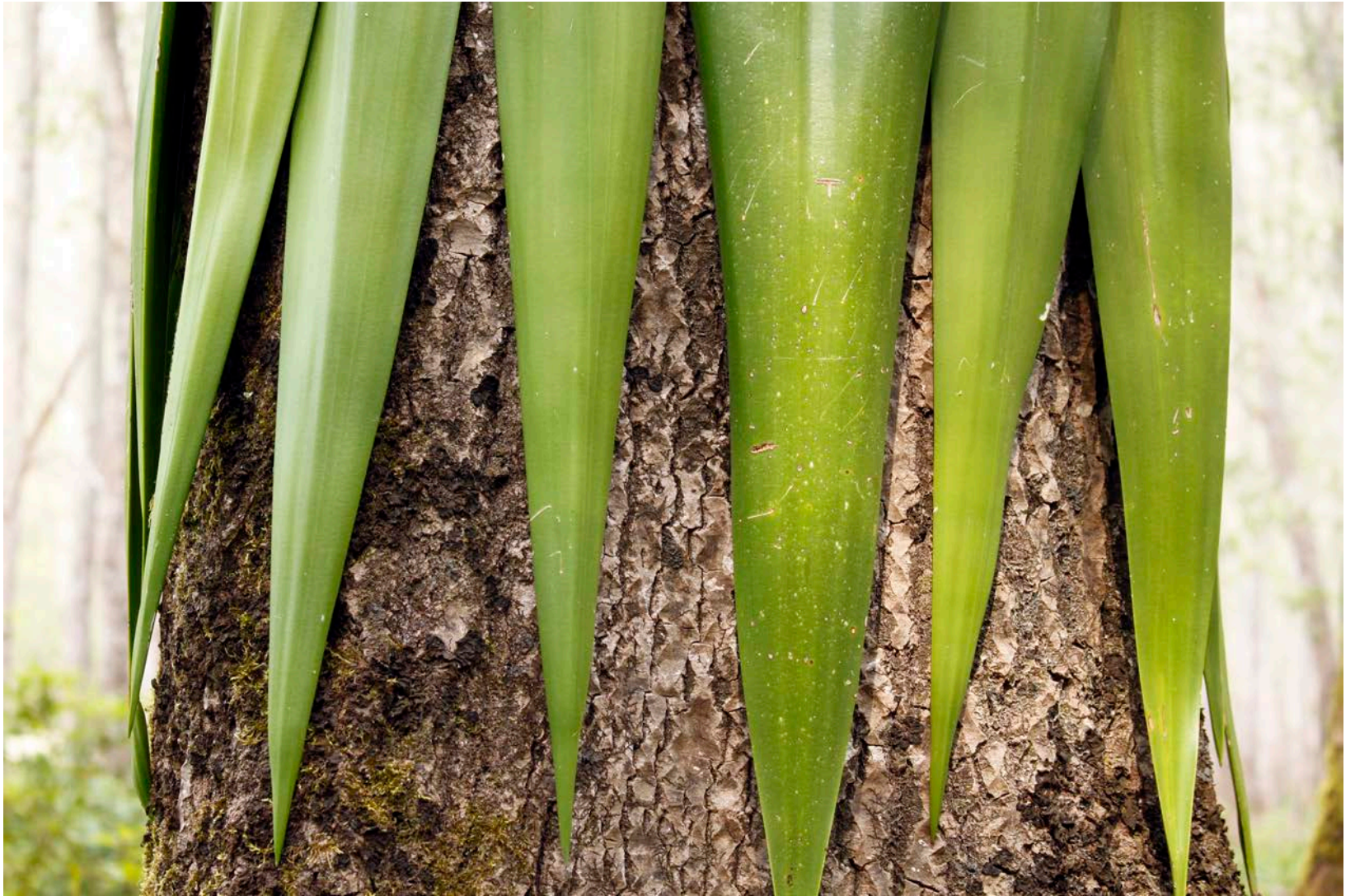
To Dress a Tree

Date of creation: 10 October 2022

Location: Jonkershoek, Stellenbosch, South Africa.

Description: Cutting leaves from a plant in the forest and attach to 3 trees to look as if been dressed.
Ephemeral





Takako Yamaguchi (Japan)

Sing by the Walk

I am now in Fukushima. It is also the land where all the villagers had to flee for a while due to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Now it is safe to grow crops and people can live there. However, access to the decontaminated mountains is still not officially permitted. I have twice hiked the hiking trails on that mountain. For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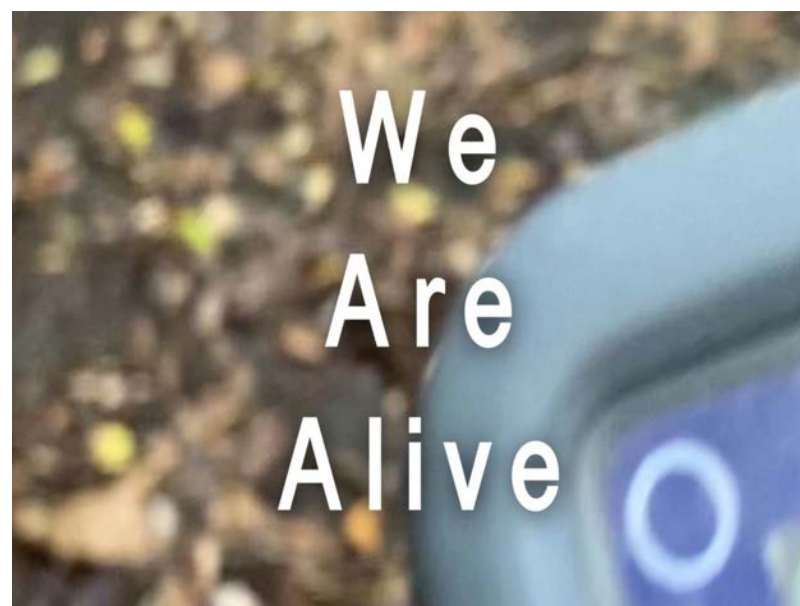




Amount of radiation received if a person remains in that location for one hour.



3.11 All people are gone from this village. It became possible to live again in some areas in 2016.



Tatsunori Fujii (Japan)

Portrait of The Hideout

silent slideshow

Japan, 2021

My expression uses video and photography along with installations.
It is my own gaze and It reflects my own state of mind.









Uku Sepsivart (Estonia)





Kitchen Iprovisation
Pearl Trickle

View form Topu
Field in Tanska
Apple Orchard Takeover



Feastround Composition

Leafs and Moss Round Composition

Lightninglike Moss with a Background

Fruit Slit / Fruit of the Earth

Fruit Slit / Fruit of the Earth View 2



Pearl Composition
Pearl tricle from spruce

h1n5
Carbon footprint

Camouf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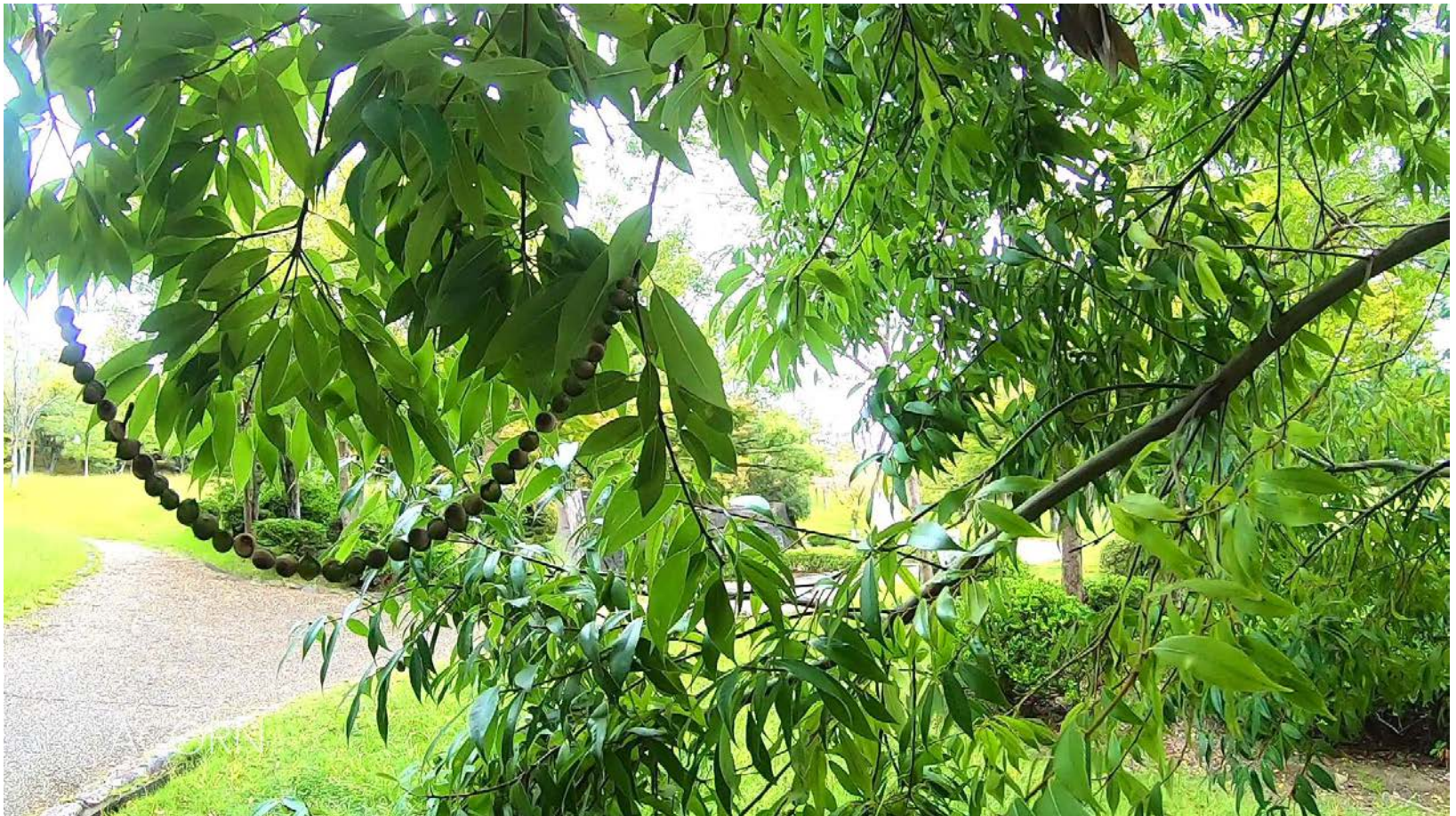
XIAO Li (China/Japan)

Celebration of Autumn Harvest – Seeds

Venue: A Park in Nara Japan

Year: October 2022

Because autumn is the harvest season.
That is the reason I use seeds as the subject of my work.
Firstly go to collect the autumn seeds around me.
Such as Agern, Thuja occidentalis, Corynocarpus laevigatus.
Secondly, use these different seeds to make patterns like necklaces.
Finally the pattern made from seeds will hang on the tree it belongs to.
People can take a walk and enjoy finding the artwork in the park.









Zehra Khan (USA)

Henna on leaves on myself

October 15, 2022

Chicago, Illinois,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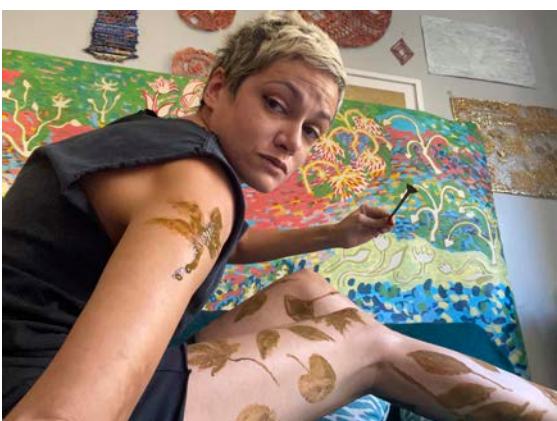
I collected leaves from around my neighborhood. I live in Chicago, Illinois, in the middle of the USA.
I painted the leaves in henna and imprinted them onto my body.

My father is from Pakistan
and he was born in Hyderabad, India.
My mother is from Idaho, USA.

Some important trees in my life:
the ginkgo tree near my school in Paris,
the catalpa tree in Provincetown that was struck by lightening,
all the maple trees that produce winged helicopter seeds, which I stick on my nose like a rhinoceros horn.

The henna came from a supermarket in Kathmandu, Nepal.
I was there one year ago,
living with a person named bug
in Jupiter's family home.

Four years ago I was in Korea,
in the home Wongil and Moon built.
I painted shadows on my body
and played with stones.







문화비축기지 2022 탱크예술제
녹색게릴라 자연-미술 워크숍_2022 가을 기획후기
전 원 길 / 작가, 대안미술공간소나무 전시감독

자유로운 삶의 예술을 위하여

문화비축기지가 주최한 2022탱크예술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녹색게릴라 자연-미술 가을워크숍에는 시각미술가, 음악가, 무용가, 평론가, 기획자, 시민 등 50명이 참가했다. 국내외 참가자들이 자연과 함께 이루어낸 자연-미술 지지*는 문화비축기지에 설치된 300인치 모니터와 유튜브로 송출되었다. 갑작스런 카카오톡 서버 화재 사고로 실시간 자동 업로드를 통한 송출은 중단되었으나 전 세계 작가들이 현장 작업 후 보내온 자연-미술을 유튜브를 통해 공유할 수 있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녹색게릴라들은 자연을 만나는 무심한 행위가 자연-미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편히 쉴 곳 찾기, 하늘 보며 숨 쉬기, 이끼에 물 주기, 선 긋는 소리 듣기, 돌 올려놓기, 거미집 들여다보기, 서로 다른 자연 찾아보기, 그냥 움직이기.... T2 야외공연장에서 시작한 그린게릴라들의 지지 이야기는 해가 지고 캄캄해 질 때까지 이어졌다. 자연-미술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밤이었다.

자연-미술은 빈 마음으로 자연을 따르는 사람이 경험하는 생명의 움직임이다. 자연-미술 지지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지지가 사람들에게 찾아오면 작은 풀과 돌멩이가 말을 걸고 그들의 일상엔 창의적 발상으로 유쾌할 것이다.

변함없이 자연-미술 공간을 열어주는 녹색게릴라들과의 다음 만남을 기다린다. 처음 자연-미술에 입문하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자연-미술 현장에서 만난 국내외 작가 분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한다. 멋진 행사에서 불쑥불쑥 어슬렁거리며 자연과 함께 하고 커다란 모니터로 녹색게릴라들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초청해준 문화비축기지 최윤정 큐레이터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자연-미술. 지지

녹색게릴라 자연-미술 사계절워크숍은 간략하게 지지워크숍 혹은 gg워크숍이라고 쓴다. 여기서 '지지'는 녹색게릴라의 영문 표기인 Green Guerrilla의 이니셜 gg의 소리를 딴 '지지'이며 영문으로 쓸 때에는 소문자 gg로 쓴다. '지지'는 '자연-미술'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하며 두 개의 단어는 문맥에 따라 함께 혹은 따로 사용할 수 있다.

2022 Tank Art Festival at the Oil Tank Culture Park
Green Guerrilla nature-art Workshop Review_Autumn, 2022
Wongil Jeon / Artist, Director of Art Space Sonahmoo

For the art of free life

The Green Guerrilla Nature-Art Autumn Workshop, which was held as part of the 2022 Tank Art Festival program hosted by the Oil Tank Culture Park, featured 50 participants who were visual artists, musicians, dancers, critics, planners, and citize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ticipants created the nature-art gg* with nature, which was broadcast on YouTube and displayed on the 300-inch monitor at the Oil Tank Culture Park. Real-time automatic uploading was halted due to the sudden KakaoTalk server fire accident, but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were still able to share nature-art sent after field work through YouTube.

In this workshop, Green Guerrillas demonstrated that simple act encountering nature can become nature-art. Finding a place to rest, breathing while looking at the sky, watering moss, listening to the sound of line drawing, placing a stone, looking into a cobweb, looking for differences in nature, simply moving... The green guerrillas' talk about their gg, which began at the T2 outdoor concert hall, lasted until the sun set and it became dark. That evening caused me to reevaluate what nature-art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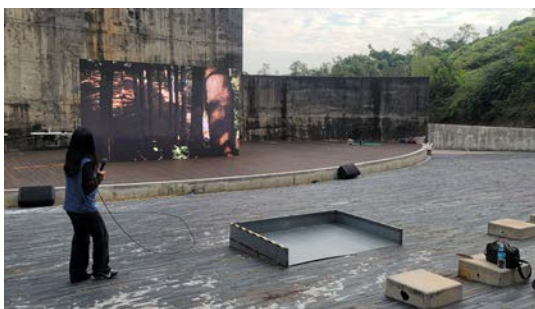
Nature-art is the movement of life experienced by people who follow nature with an empty mind. Nature-art gg is passed down from one heart to the next. Small grasses and stones will speak to people when gg visits them, and their daily lives will be delightful with creative ideas.

I look forward to the next meeting with the Green Guerrillas who open the nature-art space with unwavering trust. With those who are new to nature-art as well as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who have recently reconnected in the nature-art field, I hope for ongoing exchanges. I would also like to thank Oil Tank Culture Park Curator Yoonjung Choi for inviting us to appreciate the works of Green Guerrillas via a large monitor at a wonderful event.

* nature-art. gg

The Green Guerrilla nature-art Four Seasons Workshop is abbreviated as gg Workshop. 'gg' is also used in the same sense as 'nature-art', and the two words can be used together or separately depending on the context.





**문화비축기지 2022 탱크예술제
녹색게릴라 자연-미술 워크숍_2022 가을**

주최 : 서울시문화비축기지
기획 : 대안미술공간소나무

발행 : 대안미술공간소나무
발행일 : 2022.11

**Seoul Oil Tank Culture Park Tank Art Festival 2022
Green Guerrilla nature-art Workshop_Autumn 2022**

Host : Seoul Oil Tank Culture Park
Plan : Art Space Sonahmoo
Published : Art Space Sonahmoo
Date : 2022.11

©2022 Art Space Sonahmoo. All rights reserved



gg

Four Season nature-art Workshop